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복지혜택, 영주권 등 이민신청 거부 사유

워싱턴포스트, 더욱 강화된 반이민법 초안 공개
세금크레딧, 오바마케어, 하우스헹크, 워도 대상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하는 근거가 될 수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복지혜택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은 물론 H-1B 등 임시비자 신청도 거부토록 하는 초강력 반이민법 초안이 공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2월초 로이터와 박스(VOX) 등이 당시 초안 발췌본을 인용해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불허하는 법안을 미국 정부가 상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이 보도는 상당한 비판에 부딪혔으며 이로 인해 국토부는 법안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가 28일 입수한 신

규범안 초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혜택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고 심지어 적용범위도 영주권에서 취업비자 등 임시비자 신청자까지로 확대시켰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한 이민정책연구소의 마크 그린버그 수석연구원은 “이들은 이번 법안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새로운 근거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번 법안은 거의 모든 형태의 정부보조 및 혜택을 “생활보호대상”으로 고려한다. 가장 충격적인 면은 심지어 중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만 받아도 거부대상이 된



워싱턴포스트가 28일 입수한 신규법안 초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혜택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고 심지어 적용범위도 영주권에서 취업비자 등 임시비자 신청자까지로 확대시켰다

다.

부시행정부 시절 마련된 현재 이민법안에서의 소셜시큐리티 인컴 등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의 규정은 현금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세금혜택은 물론 건강보험 보조 그리고 기타 비현금 ▶▶2면으로 계속



서퍽카운티 검사직에 출사표를 던진 린다 챔피언 변호사

한국계 린다 챔피언 서퍽카운티 검사 출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계인 린다 챔피언 변호사가 올해 말 공식이 될 서퍽카운티 검사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인 모친을 둔 챔피언은 올해말 출마포기 의사를 밝힌 댄 콘리 검사의 자리에 도전장을 낸 다섯번째 민주당 후보이다.

이로써 현재 서퍽카운티 검사직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경선 후보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Weekly Special

보스톤 출발-인천행
왕복항공권 최저가

\$1070~

상당문의
ICE TRAVEL
(617) 424-8956
(866) 619-4223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ENGEL & VÖLKERS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복지혜택 수혜, 영주권, H-1B 등 이민신청에 거부 사유

▶▶1면에 이어서

공공혜택까지도 그 대상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223페이지에 달하는 신규법안에서 생활보호대상으로 포함되는 혜택들은 EITC,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어린이의료보험혜택(CHIP), 임신부 및 영유아영양프로그램(WIC), 교통보조, 주택보조(어포더블하우징), 에너지 보조 등이다. 이번 변경은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취업비자와 같은 임시취업비자에도 적용된다. 또한 DACA프로그램 혜택자도 영주권을 신청시에는 적용되게 된다.

비록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번 초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연방관보에 이를 게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방관보 게재 후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게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서 생활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고려되는 것은 군인혜택 또는 정부공무원 혜택, 장애, 위컴, 메디케어 등 세금으로 모든 자금이 부담되지 않는 것들이다. 초, 중등 교육과, 헤드스타트법에 따른 프리스쿨보조 등도 예외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향후 정부보조 또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으로 인해 비자 심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이번 법안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새로운 근거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마크 그린버그 이민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신규 법안에서 생활보호대상으로 포함되는 혜택들

EITC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어린이의료보험혜택(CHIP)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프로그램(WIC)
교통보조
주택보조(어포더블하우징)
에너지 보조

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 형성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이 법안은 이미 완성됐으며 국토안보부 크리스텐 니엘슨 장관의 최종 인가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변경은 이민국 직원들에

게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녹음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민국의 공개토론자리에서 한 이민국 직원은 프랜시스 시스타 이민국장에게 이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스타 국장은 자신도 싫은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임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이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세금을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서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 거주하는 4천1백5십만 이민자들 중에서 3.7%가 현금보조를 받았으며 22.7%가 비현금보조인, 메디케이드, 하우징보조, 연료보조를 받고 있었다.

2억7천만명의 바이민 미국인들도 거의 유사한 비율의 정부혜택을 받고 있었다. 3.4%가 현금 보조를 그리고 22.1%의 미국인들이 비현금 정부보조를 누리고 있었다.

이번 이민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과거의 이력도 문제 삼을 것인지 법안 시행 이후부터의 혜택수혜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시행과 더불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 hsb@bostonkorea.com

한국계 린다 챔피언 서퍽카운티 검사 출마

▶▶1면에 이어서

는 에반드로 카발로 매사추세츠 하원의원, 그렉 헤닝, 검사보, 새넌 맥컬립 그리고 레이첼 롤린스 등이다. 서퍽카운티는 보스턴, 첼시, 리버어, 윈스롭을 관할한다.

린다 챔피언 변호사는 서퍽카운티 검사로서 일했으며 서퍽대학 수석 강사 및 노스이스턴 대학 비상근 교수를 맡고 있기도 하다. 산업재해부 수석변호사보를 맡기도 했다. 서퍽법대를 졸업했으며 보스턴 법대에서 은행 및 금융법을 공부했다.

챔피언 변호사는 선거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을 전 검사출신의 교육가 그리고 사회봉사자라고 밝히고 “강력범죄 및 금융범죄 기소에 초점을 맞춰 서퍽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챔피언 변호사는 4월 7일 토요일 정오 12시에 도체스터 소재 시저리아레스토랑(Restaurante Cesaria, 266 Bowdoin Street Dorchester, MA)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챔피언 변호사 후원회장은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맡았다.



한편 린다의 경쟁자로 도체스터 주 하원의원이자 전 서퍽카운티 검사였던 에반드로 카발로, 현재 콘리 검사의 검사보로 재직중인 그렉 헤닝이 있다. 헤닝은 약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서퍽지검 대조직 범죄부서를 이끌었다. 또한 새넌 맥컬리프는 갱청소년 담당 조직인 로카의 디렉터이다. 레이첼 롤린스는 전 매스포트 수석변호사였으며 전 미연방검사보를 지내기도 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5월 1일까지 총 1,600 유권자 서명지를 제출해야 한다. 헤닝은 지난 3월 중순 시청에 서명지를 접수했다. 반면 카발로 의원은 주요 하원의원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글로브, 덴고 연방하원 후보 선거자금 모금에 만지

보스톤시 근무 경력이 선거 자금모금 도움
선거자금 기부 시 인허가 획득 겹친다 의문제기
위법행위를 한 증거는 분명히 없다고 전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제3지역구 연방하원직에 출마한 대
니얼 고 후보(33)가 기록적인 선거자금을 모은
뒷배경에 보스톤시장 비서실장 경력이 떠받치
고 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보도했다.

보스톤글로브는 4월 4일 인터넷판을 통해 덴
고 후보에게 거액을 기부한 주요회사들은 기반
이 보스톤이며 보스톤시와 사업이해관계가 있
는 건설사, 법률회사 등이었다고 밝혔다.

보스톤글로브는 덴고 후보의 기부자들을 면
밀히 분석한 결과 기부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사업프로젝트가 덴 고의 정치적 매토인 마틴
월시 보스톤시장의 산하의 기관의 허가에 의존
하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스톤글로브는 대니얼 고가 선거자
금을 모으기 위해 위법행위를 한 증거는 확실
하게 없었다고 안전막을 쳤다. 그럼에도 보스
톤의 정치와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기업의 기부
행위는 대니얼 고의 보스톤 시장 비서실장 경
력이 유도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자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는 후보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혜택을 가
져다 주는 반대급부로 추후 혜택을 받는 게 아
니냐는 의문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
자들이 보스톤시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에는 일부 기부자들의 경우 설사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위압의 느낌을 준다고 지
적한다.

WS Asset 매니지먼트사는 덴 고후보에게
기부한 후 시포트 사업개발 허가를 따냈다. 보
스톤도시계획개발청(BPDA)의 11월 16일 같
은 회의에서 슈스터 원게이트 컴퍼니는 보스톤
미션힐의 115채아파트단지 개발 허가를 따냈다

9월 덴고 후보에게 기부한 내셔널디벨로퍼
트사는 11월 21일 245채의 사우스엔드 주거빌
딩 건축을 허가받았다.

200명의 법률회사 골스턴앤스토프는 BPDA
의 대표변호사 계약을 따냈다. 이 법률회사는
고 후보에게 5천5백불을 기부했다. 보스톤의
법률회사 민츠레빈의 변호사들도 6천불을 기
부했다.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글로브는 적지
못했다. 나이트클럽 창업주도 5천400불을 기부
했다. 보스톤레드삭사의 구단주이자 글로브의
소유주인 래리 루키노도 1만600불을 기부했다.



덴고 후보는 2017년말까지 1백 60만불의 선거자금을 확보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확실한 차별성을 선보였다

그외에도 상당수의 회사들이 기부했지만 글로
브는 반대급부를 나열하지는 않았다.

글로브는 보스톤의 부동산개발업체, 법률회
사, 회사대표들, 건설사들의 기부금이 지난해 9
월 한달동안 모은 80만불 중 15만5천불이 넘는
다고 밝혔다. 글로브는 수많은 후보들이 우후
죽순처럼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토록 많은
선거자금을 확보한 것은 엄청난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
선거자금중 3만3천불만 제 3지역구의 지지자들
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덴 고 후보는 추세를 몰아 2017년말까지 1백
60만불의 선거자금을 확보하면서 다른 후보들
과 확실한 차별성을 선보였다.

선거자금 모금에 있어 해당 지역구 밖에서
선거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주상원 바바라 이탈리아언은 지난해
말까지 22만8천490달러를 모았는데 90%가 지
역구 외에서 모은 것이었다. 러퍼스 기포드의

경우 49만6천577달러를 모았지만 단 13%만 지
역구에서 나온 것이었다.

제 3지역구에서 오랜 터전을 가꿔온 로리 트
래한 후보는 지난해 54만3천522달러 모금액 중
절반이상을 지역구에 모으는 기업을 통했다.
그래한 후보는 전 3지역구 연방하원이었으며
현재 유메스보스톤 총장인 마틴 미한의 선거참
모였으며 마틴 미한의 전격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다.

글로브는 덴 고후보에게 특혜 의혹을 한것
제기한 후 고 후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도 밝혔다. 수석 선거참모인 덕 루빈은 성공
적인 기부금모금이 고 후보의 선거자금 부탁
전화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덴 고 후보는 기꺼
이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는 루빈 참모는 “
나는 덴고 후보가 매일 매일 하루에 5-6시간씩
앉아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본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3/17/18 - 5/26/18	Sat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July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9/18 - 7/27/18	Mon-Fri
Biology Preview	1:00 PM - 3:00 PM	7/9/18 - 7/30/18	Mon/Wed/Fri
Chemistry Preview	4:00 PM - 6:00 PM	7/9/18 - 7/30/18	Mon/Wed/Fri

August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6 - 8/24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8/6 - 8/24	Mon-Fri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2018년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25차 연례학술대회 개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NEBS)는 5월 12일 토요일 보스턴 롱우드 소재 하버드 메디컬스쿨 TMEC 월터 암피서터에서 26차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8년 NEBS 26차 연례학술대회에서는 루크 리(Luke P. Lee)교수(UC Berkeley), 권형배(Hyungbae Kwon)교수(Max Plank Florida), 그리고 허선(Sun Hur)교수(Harvard Medical School) 생명과학 분야와 연관된 기초 연설을 맡는다.

심재훈 35대 회장은 “올해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NEBS 연례 학술대회는 미 동부지역 가장 크고 대표적인 한인 생명과학 행사로 매년 약 200여명의 한인과학자가 참석한다”며 “뉴잉글랜드 지역의 생명과학 관련 한인 학생들과 과학자들의 학술교류 및 기타 유용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학술대회 등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https://nebs2018annual.eventbrite.com>로 할 수 있으며 4월 28일까지 신청할 경우 \$10로 할인된 금액에 등록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NEBS)는 5월 12일 토요일 보스턴 롱우드 소재 하버드 메디컬스쿨 TMEC 월터 암피서터에서 26차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NEBS(www.nebskorea.com)는 보스턴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신진 생명과학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돼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비영리 학술단체다. 하버드, MIT, 예일, 텡스, 브라운, 보스턴, 유펜 등 유수의 대학들과 보스턴 지역에 위치한 20여 개의 생명과학 연구소와 바이오벤처 등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생명과학자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은 박사급 연구원들로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생명과학, 의과학, 신약개발, 생체공학, 바이오이미징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있다.

NEBS는 개인 또는 기업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후원자 및 후원기업을 위해 연중 또는 학술대회 기간 동안 채용 설명회,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및 기업 후원 관련 사항은 심재훈 회장(president@nebskorea.com)에게 문의 가능하다.

2018년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25차 연례학술대회

일시: 2017년 5월 12일 (토) 8:00 am - 8:00 pm

장소: 260 Longwood Avenue (Tosteson Medical Education Center) Walter Amphitheater, Boston, MA 02115

bostonkorean@hotmail.com

설령탕으로 따뜻해진 노인회원들 서울설령탕 식사 대접 “좋아요”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100여명에 달하는 노인회원들이 올스톤 소재 서울설령탕에서 도가니탕과 설령탕 점심을 대접받았다.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인회원들은 서울 설령탕을 자유스럽게 방문해 점심을 들었다.

이날 노인회원들과 서울설령탕에서 식사한 윤철호 노인회장은 “맛있게 요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한 서울설령탕 박천우 사장님으로부터 어른 공경과 사랑 봉사를 배웠다. 환영과 노고에 감사한다

” 고 밝혔다.

박천우 사장은 “많은 어르신분들이 오셔서 식사해주셔서 감사하다. 노인회 임원진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고 답했다.

한편 4월 18일 셋째주 사랑방모임은 오전 9시부터 커피타임을 가지며 박은희 강사의 요가 강의 후 11시부터는 유나이티드댄스 로웰(Lowell) 이상진 치과의사와 직원들이 건강치아 강의와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100여명에 달하는 노인회원들이 올스톤 소재 서울설령탕에서 도가니탕과 설령탕 점심을 대접받았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แนक्स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세계 No.1 홍삼브랜드 정관장

저온숙성방식 도입으로 유효성분 강화 및 맛/향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정관장 新홍삼정

Special Promotion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30 상당 증정

천녹정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FREE \$70 상당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903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응모자격 성인부문 / 청소년 부문
공모부문 성인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청소년 (글짓기)
접수기간 2018.4.2.(월) ~ 5.31.(목)

※ 한국시간 기준 (마감일 접수 요망)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4월2일부터 두달 간 성인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청소년(초, 중고등부) 글짓기 작품도 공모
 20주년 맞아 재외동포 이민 체험수기 부문 공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은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성인부문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청소년 글짓기부문이 진행되며, 총 상금규모는 3,530만원이다.

올해는 재외동포문학상 2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이민사 관련 기록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2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문학상이 타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말과 정서를 지키고, 차세대 동포들에게는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 사용의 동기 부여를 위해 1999년부터 재외동포문학상을 시행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후아유> 이향규 작가 보스톤 북콘서트

“소수자가 된 후 소수자들을 다시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최근 창비교육을 통해 <후아유>를 출간한 이향규 작가가 보스톤을 방문해 7일, 9일 두 번의 북콘서트를 가진다.

“바뀐 자리에서 다시 보기: 이야기의 힘”이라는 주제의 북콘서트는 4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보스톤 온누리 교회 (73 Pine St, Woburn, MA)에서 열린다. 4월 9일 월요일에 오후 7시에는 보스톤대학(BU) CAS 빌딩 B25강의실 (725 Commonwealth Ave, Boston, MA)에서 BU 한인 학생회 주최로 두번째 콘서트가 개최된다.

<후아유>는 다문화 혹은 이주민으로 불리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다. 오랜 시간 소수자를 돕는 활동을 하다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소수자로서의 삶을 경험한 저자의 성찰이 담겨있다.

이향규 작가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에서 다문화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북한 출신 이주민들을 만나며, 이들을 돕는 활



동가이자 연구자로 일했다. 이작가는 2016년에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그동안 이주민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자신 스스로가 이주민으로서 다시 보게 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이 작가는 서울 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남자 토니와 결혼해서 애린과 린아 두 딸을 낳아 가족을 이루었다.

이번 북콘서트는 30분의 저자 강연 후 1시간 반 동안의 대화/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번 북콘서트를 준비한 이재호 변호사는 “미국 사

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4월 7일(토) 오전 10시
 보스톤 온누리 교회 (73 Pine St, Woburn, MA)
 4월 9일(월) 오후 7시
 Boston University CAS 빌딩 B25강의실 (725 Commonwealth Ave, Boston, MA)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캠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캠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2세들의 한글수준이 정말 놀라웠다”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교내작문대회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작문대회를 3월 31일 개최했다. 올해로 12번째 맞는 작문대회에서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모두 12개 부문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와 생각 및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글로 표현하며 수준급 한글 실력을 선보였다.

고급과정 학생들은 특히 ‘올림픽과 남북의 평화통일’이란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잘 전개하기도 했다.

저학년 부문 심사를 맡은 한 교사는 “어린 학생들은 아직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이 서투르지만 ‘도박또박 예쁘게’ 선택한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열심히 써 보려는 마음을 보게 되어 감동이었다.” 고 밝혔다.

고급부문의 심사를 맡은 교사는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 2세 학생들의 한글 수준이 정말 놀라웠다.” 고 전했다. 다른 교사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글을 읽어보며, 더구나 어른들도 쉽지 않은 국문법 쪽에서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놀라웠다.” 고 밝혔다.

작문대회에 아이를 참가시킨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대견해 하고 한글 쓰기를 재밌어 한다” 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남일 교장은 “

학생들이 한인 2세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늘 열심히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는 5월 5일로 예정하고 있는 ‘제 12회 교내 한영-영한대회와 한글자랑대회’에서도 멋진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글교육은 물론 올바른 역사 및 문화교육을 43년동안 이어오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5월 5일에는 학부모회 주최로 봄 바자회를 갖는다. 한국학교 등록문의 및 교사지원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 또는 남일교장 (508-523-5389, koreanschool.ne@gmail.com)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올림픽과 남북 평화통일

제 12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작문대회 고급3부문 대상 수상작

지난 2월 중순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었다. 개막식 때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한국’으로 나왔고, 북한 선수들도 전에보다 경기에 많이 출전하고,金正은의 여동생이 오기도 했다. 오랫동안 남한과 북한이 조금 정상적으로 서로 대하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한국의 뉴스와 신문, 라디오와 토크쇼에서 조심스럽게 ‘남북통일’ 또는 ‘남북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고, 이 희망이 전세계적으로 퍼졌다. 하지만, ‘남북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북 통일이 너무나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먼저 역사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일제강점기 후 ‘안정상’으로 USSR과 미국이 한반도를 38선에서 나누고, USSR이 북쪽, 미국이 남쪽을 ‘도와’주었다. 실제로는 도움이 아닌 거의 지배라고 해야 한다. 이 두 나라에 의해 북한과 남한이 탄생하고, 남한의 정부가 미국을 닮아가자 북한의 정부가 USSR의 정부를 닮아갔다. 그 후로는 ‘6.25 전쟁-정치적인 것’ 때문에 한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같이 서로 싸우고, 중국, USSR, 미국이 뒤에서 돈과 총과 군대를 기부했다. 이 때의 역사를 보면 진짜 한국이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 같기만 하다.

6.25 전쟁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이 정식으로 두 나라가 되었다. 그 이후에 남·북 관계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다. 남한과 미국이 사이 좋게 지내고 있는지, 일본이랑 남한이랑 관계가



대상을 수상한 백두반 김태연-고급3과정
참은지, 중국이랑 남한이랑 사이가 괜찮은지,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상태가 항상 바뀌고 있다.

남한이 북한이 싫어하는 나라(미국, 일본)와 친할 때는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다. 하지만, 남한의 대통령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때 사이가 좋아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진보적인 대통령을 보면 다 남북간의 대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주 진보적인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관계가 많이 나아졌지만, 그 후로 보수적인 대통령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무리 중국과 친해져도, 북한한테 신경을 안 썼다. 하지만, 이제는 남한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진보적인, 대화를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남북사이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에 또 문제가 생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THAAD 사건 때문에 또 관계가 악화되자, 평창올림픽이 이슈가 되었

▶▶7면으로 계속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내 작문대회 각 부문 수상자 명단					
참가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대상 수상작 제목
기초-2 특강1부문	김수현(토끼반)	한유주	동이랑	성리엄	생일파티
기초-3 특강2부문	허진(곰도끼반)	손희수 이아윤	임필립 이재현	고종익	내가 좋아하는 음식
기초-4 특강3부문	오재인 박단비(홍부)	김준희 이다인	나연재 황수련	한솔로론 김대환	한국학교
	박재희(늘부반)	백재연	주사랑		봄
초급-1부문	배지원(신라1)	남궁다은	오유진 이가빈	천예준 강다예	나와 애완동물과 말을 할 수 있다면
	김주현(신라2)	유리스턴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 기억에 남는 여행
초급-2부문	기예린(백제반)	배지훈 이노아	나예준	이승학	기억에 남는 여행
초급-3부문	이준호(고구려)	임서현 이영걸 이지윤	박예원	박혜린 한예린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급-1부문	서예린(고려반)	김예린	서민재	이혜린	한국을 자랑하고 싶어요
중급-2부문	이혜린(조선반)	최서경	노진	최유나 김태유	나에게 백만 달러가 생긴다면
중급-3부문	이재서(한국반)	정동현	김수지	권한나	내 마음 속의 리더
고급-1부문	서가은(금강반)	이예은	이유나	채민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고급-2부문	최정완(한라반)	이상재	이유진	김준영	나에게 한국이란?
고급-3부문	김태연(백두반)	정기려	이하윤	이지윤	올림픽과 남북 평화통일

각 부문 대상글과 수상자 전체명단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를 참고하면 된다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6면에 이어서

었다. 긴 타협과 대화 끝에 남한과 북한이 개막식 때 같이 입장하고, 하기도 같이 뛰기로 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 남한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뉴스를 본 것으로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평화통일을 원한다. 하지만, 통일의 값이 너무 비싸기만 하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만약에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고, 북한이 무너져서 남한의 정부 아래서 통일이 된다면 남한 사람마다 일인당 몇 조원씩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리고, 통일을 하면 남한의 GDP가 급격히 내려가고 다시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의 경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남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너무 싫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 생각해 보았다. 내 생각에 북한을 계속 그대로 놔두 버리면 언젠가는 너무 약해져서 무너질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김정은 정부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많이 약해지면 김정은과의 타협이 쉬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과 북한 정부의 마음 속에서는 북한이 1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북한 정부는 오로지 부와 권력을 원한다. 그래서 북한이 약해질 때 타협을 하면 돈과 안전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과 북한 정부가 없어질 때 남한 같은 정부를 북한에 세우고 모든 북한 사람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것 같다. 김정은의 말을 지우기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미래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후 북한의 경제를 더 좋게 만들고, 외국 회사들이 북한 사람과 자원을 함부로 못 써먹게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정식적인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김정은이 없어져도 북한이 무너져도 통일이 이상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지마자 수 많은 북한 난민들이 중국과 남한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생각엔,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 것 같아도, 남북평화 통일이 한민족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동창회 강연 블록체인에 관심 집중

반도체 강기동 박사와 블록체인 김진화 대표 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주최한 MIT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가 50여명의 서울대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반도체의 전설 김기동씨와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진화대표 등 강사가 초청되는 등 관심을 모았다.

반도체는 이미 지난 기술이란 점에서 상대적으로 블록체인 강연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강연 후 질문은 블록체인에만 집중될 정도였다.

첫번째 연사인 강기동 박사는 오늘날 삼성반도체의 전신인 한국반도체를 설립해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 한국 반도체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온 후 조용히 숨어 지내며 통신품을 수리하며 살았다고 밝혔다.

반도체 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는 자신이 이력서를 내는 경우 반도체 회사를 선택해야 하고 반도체 기술은 미군사기밀과 연루되어 있어 두려웠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강 박사는 오늘날 한국성장에 기여한 것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강 박사는 “내가 무서웠다. 그래서 내 이름이 꼭 빠졌다” 며 당초 한국의 반도체 발전사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다.

강 박사는 자신이 모토롤라 선임연구원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이 아마추어무선햄 핸드북을 4년동안 읽으면서 외우다시피 했던 것이라며 자신이 좋아서 했던 일이 결국 대학에서 그리고 향후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모토롤라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던 당시 “퇴근할 때 일을 주문해 놓으면 아침에 그것이 얼마만큼 변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출근시간이 너무도 기다려졌다” 며 당시 반도체 개발이 얼마나 흥미로웠는지를 설명했다.

두번째 김진화 대표는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에 관한 강연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윤상래 서울대미주동창회장



강기동 박사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표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주최한 MIT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가 50여명의 서울대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대표는 가장 먼저 한국인의 냄비근성을 꼬집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자 수는 2017년초 10만명였으나 2017년 말에 300만명 지금은 한 때 최고 500만명에 달했다. 거래금액도 200억에서 10조로 많아졌다.

특히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을 어떻게 사회화해야 되느냐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즈음에 기술의 범위를 암호화폐로 좁혀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일으켰다” 고 지적했다. 암호화폐가 화폐냐 아니냐 이런 논란에 성급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을 던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답들이 많아져서 답을 찾는 사람보다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중요해졌다” 고 밝혔다.

김대표는 “블록체인 이전의 인터넷은 정보의 인터넷이었지만 블록체인 이후의 인터넷은 인터넷에 가치개념이 탑재된다.” 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가치를 담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장에서 인터넷의 가치는 중재자인 구글, 페이스북 등의 주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인터넷의 기초가 되는 TCP/IP 등의 프로토콜은 국방부 등 정부가자금을 지원하며 가치를 갖지 않았다.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라는 보상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와 같은 프로토콜을 만들어도 돈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자본시장을 갖게 된다. 암호화폐의 본모습은 블록체인 기술에 찍혀진 자본시장이라는 것이다.

김대표는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는 투기판이 맞다” 고 지적했다. 또한 버블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버블이 어떻게 꺼지게 될지는 향후 금융시장과 어떤 접점을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즉 암호화폐가 시카고에서 선물형태로 올라간 것처럼 나스닥의 ETF에 포함되느냐 또 주요 금융사들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등이 관건이라는 점이다.

한편 이번 강연에 앞서 윤상래 서울대미주동창회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의 발전 배경과 블록체인을 알고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해 한국 4차산업혁명의 첨병이 되어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한국과 매사추세츠간의 긴밀한 사업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며 자리를 마련한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감사를 전했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 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래브라도 리트리버 27년째 가장 인기있는 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인들은 애완견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를 중심으로 프렌치 불독이 미국인들의 애정을 독차지하며 인기가 급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칭인 “랩(Lab)” 인 이 애완견은 무료 27년동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의 자리를 지켰다. 미국내 개의 등록을 관리하는 미애견가클럽(American Kennel Club)이 3월 27일 발표한 애완견 순위에 따르면 랩에 이어 독일 셰퍼드와 골든 리트리버가 2, 3위를 차지했다.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프렌치 불독은 4위를 차지했으며 불독이 5위로 뒤를 이었다. 5위였던 비글은 6위로 밀려났다. 독일의 숏헤어드 포인터가 처음으로 10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보스턴에서 가장 인기있는 애완견의 순위도 미국내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스턴에서는 다만 요크셔테리어가 불독을 밀어내고 5위를 차지했다.

6위부터는 비글, 푸들, 로트바일러, 요크셔테리어 독일의 숏헤어드 포인터(GSP)가 10위까지 차지했다.

독일 숏헤어드포인터는 사냥개 중

으로 잘생겼으며 운동신경이 좋아 특히 폭탄물 발견 및 기타 견종 스포츠에서 활약을 보이고 있다. GSP는 지난 2016년 권위있는 웨스트미니스터 애완견클럽 견종쇼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GSP는 박서(Boxer)를 밀어내고 10위에 올랐다.

27년간 1위자리를 수성한 랩은 친근하며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다.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랩의 습성은 수년간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특히 랩은 개다잉, 순종도, 반사신경 등의 스포츠에 뛰어나 경찰의 K-9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서비스견, 구조견, 그리고 치료견 등으로도 사랑받고 있는 사랑스런 견종이다.

랩은 보스턴을 비롯해, 애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덴버, 휴스턴, 시애틀 그리고 워싱턴DC 등지에서 1위를 차지한 견종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10위안을 지키고 있는 견종은 비글로 1884년 미 애견가클럽(AKC)이 창설된 이래 여전히 10위안을 지키고 있다.

가장 인기가 급상승중인 애완견은 프렌치불독이다. 이 견종은 20년전 76에서 무려 4위까지 경종 뛰어 올랐다. 과거 1910년 6위 2015년에 6위에 오르

기도 했다.

프렌치불독은 느긋하고 장난스러우며 상황적응이 빠른 특징으로 사랑을 받아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인 인기를 누려온 비글을 6위로 끌어내리며 4위를 차지했다. 덩치가 작은 이 견종은 특히 대도시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웨스트팜비치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다.

내틱의 한 견종 양육가는 “모두가 프렌치 불독을 찾는다” 며 인기를 설명했다. 스타워치의 외계인의 모양을 흉내내게 했고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 종을 선호하고 있다. 또 얼마전 비행기 선반에 넣어 운반되다 사망해 화제가 된 것도 바로 이 프렌치불독이다.

한편 최근들어 시베리안 허스키와 호주 셰퍼드가 20위 안에 들었으며 치와와, 피그, 말티즈가 20위 밖으로 밀려났다.

미애견가클럽의 순위는 매년 새로 등록된 개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애완견 등록처이다. 미애완견의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약 7천만 애완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의료비용 공시 웹사이트 곧 출범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응급실에 갔을 때 의료비용은 얼마나 될까. 치료후 보험사에서 보낸 통지서를 통해 대충 감을 잡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비용은 확인하기 힘들었다. 매사추세츠 주는 병원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각종 의료비용, 테스트비용을 공시한 웹사이트를 곧 출범할 계획이다.

웹사이트는 지난해 9월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계약사의 잘못된 데이터 입력으로 인해 올봄까지 연기됐으며 조만간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 의료정보분석센터(Center for Health Information and Analysis)는 의료데이터의 정보교환소 역할을 하며 주정부 기구 주법에 따라 의료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 이 센터는 의료비용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주정부의 목표의 한 부분으로 이번 웹사이트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개설 연기와 더불어 주내 주요 병원 관계자들, 의사들, 의료보험사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친 후 과연 이 웹사이트가 정확한 가격정보를 줄 수 있는지,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 2개월동안 병원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웹사이트는 의사에게 지불하는 비용과 수백개의 외래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나와있다. 이 비용은 보험사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에 환자들이 병원 방문시 본인 부담으로 내는 비용까지 더한 금액이다.

특히 같은 의료서비스라 할지라도 병원에 따라 아주 다양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메모그램의 비용으로 한 보스턴 병원은 \$257을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병원은 \$439, 또다른 병원 \$573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었다.

특히 메모그램, MRI, 콜로노스코피 등 자신의 의료비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주정부 웹사이트보다는 자신이 이용하는 보험사의 의료비용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현재 매사추세츠 의료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가입한 보험 플랜에 따른 의료비용을 이미 공개하고 있다.

주정부 웹사이트는 주민들이 더 많은 의료비용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자신들이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스티브 윌시 매사추세츠 병원협회 회장은 의료보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지하지만 주정부의 의료비용 웹사이트의 정보가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Live방송중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MICROBLADING & PERMANENT MAKEUP

반영구 메이크업
자연눈썹
아이라인
입술

MA Licensed permanent cosmetics Artist

Jin 978.935.1395
5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공기로 조각하다"

데코르데바 미술관 오종 작가 전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얇은 펜촉으로 그린 듯 날카로운 선이 하얀 방을 가로지른다. 벽에 그어진 것 같이 보이던 선은 가까이 갈수록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쪽 벽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던 검은색 실이 보이지 않는 투명 낚시줄에 묶여 직각으로 떨어진다. 검은실 끝에 달린 작은 추가 방 안의 공기를 한껏 끌어모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주변의 빛과 그림자 사이에 절묘하게 위치한 선은 마치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허공에 매달린 구조물을 둘러가며

관찰하다 보면 그를 둘러싼 공기가 드러난다. 데코르데바 미술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2인전 “공기로 조각하다: 이안 맥마혼, 오종” (Sculpting with Air: Ian McMahon, Jong Oh)에 참여하게 된 한국 작가 오종의 작품이다. 현재 뉴욕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는 2012년부터 허공에 매달린 기하학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주어진 공간에 따라 설치되는 작품은 중력, 빛, 그림자를 요소로 실, 나무 막대, 쇠막대, 낚시줄, 연필선 등 단순하고 선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공간을 침범하게 나누는 그

의 작업은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며 보는 이의 시선과 움직임에 따라 변화한다.

“공기로 조각하다: 이안 맥마혼, 오종” (Sculpting with Air: Ian McMahon, Jong Oh)전은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린다. 미술관에서는 전시에 앞서 현재 설치 작업 중인 작가들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었다. 4일부터 8일, 11일부터 15일에 진행되며 오종 작가와의 대화 시간은 오후 2시에 열린다.

데코르도바 미술관 (deCordova Sculpture Park and Museum)
51 Sandy Pond Road, Lincoln, MA
sun@bostonkorea.com



찰스강의 명물 베네치아식 곤돌라 사라질 위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스강의 명물 중의 하나인 베네치아식 곤돌라가 올 여름부터는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지난 17년동안 에스플라나드 라군에서 보였던 베네치아식 36피트 곤돌라 마리아와 피렌지를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찰스강 곤돌라 서비스 ‘곤돌라 디 베네치아 (Gondola di Venezia)’의 창업주인 기본스(57)와 브르노는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이 곤돌라를 판매할 계획이다. 5월부터 10월까지 매 주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들은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매자가 이 보트를 구입해 보스톤에서 계속 영업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구매자들은 모두 주박에 있는 사업자들이

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내에는 약 30여척의 곤돌라 선박이 운영중이며 보스톤에 2척이 있다.

베니스를 자주 방문했던 기본스는 이탈리아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어 곤돌라 비즈니스의 도움을 받았으며 2001년 보스톤에서 곤돌라 사업을 시작했다. 2척의 배중 좀더 장식이 있는 곤돌라는 기본스의 엄마 이름을 따서 마리아라고 지었으며 \$75,000을 주고 구입했다. 다른 한 척 피렌지는 \$40,000을 지불했다.

기본스는 오랜 친구인 브르노와 사업을 시작했다. 곤돌라 노를 젓는 것을 베니스에서 배웠으며 다른 사람들을 트레인시켰다. 보통 2사람 여행에 \$120-\$230까지 부과했다.

특히 연인들은 이 곤돌라 여행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 곤돌라를 이용해 프로포즈하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경찰서 백인 남성 비율 너무 높아

주요 부서 백인 남성 비율 60% 이상
관리직에서는 90% 가까이가 백인 남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경찰서의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대부분 백인이며, 고위직일 경우 백인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헤럴드가 보스톤 경찰서에서 통계 자료를 받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주요 부서(살인, 조직 폭력, 마약, 탈주자 체포, 특별 조사)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61% - 67%가 백인 남성이다.

이 5개 부서의 관리직을 살펴 보면 경찰 44명 중 39이 백인 남성이다. 90%에 가까운 수치다. 관리직에서는 백인 여성, 히스패닉, 아시아 경찰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매사추세츠 소수 인종 경찰관 협회의 래리 엘리슨 회장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이게 그들이(보스톤 경찰서) 보내고 있는 메시지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저 만족하고 기뻐해야 한다. 경찰직은 우리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엘리슨 회장은 현재 보스톤

경찰서에서 형사로 근무 중이다.

엘리슨 회장과 매사추세츠 소수 인종 경찰관 협회는 윌리엄 에반스 보스톤 경찰서장에게 보낼 서한을 준비 중이다. 보스톤 경찰서 내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위한 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서한이다.

보스톤 경찰서는 성명을 통해 “커뮤니티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보스톤 경찰서의 최우선 순위다. 보

스톤 경찰서는 조직 내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경찰서 내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시민 단체에서는 보스톤 경찰서 내에서 주요 조직이 지나치게 백인 남성 경찰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실제 인종 구성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경찰과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경찰서 주요 부서의 백인 남성 경찰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토플 점수를 통해 학생 비자를 받은 레이 후앙은 중국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

불법으로 학생 비자 취득 중국인 추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학생 비자 신분이 취소되고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다.

올해 21세인 레이 후앙은 연방 국토안보부를 속이고 학생 비자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2일 법정에 선 후앙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보스톤 연방 지방 법원의 데니스 테일러 판사는 후앙에게 징역 형과 함께 본국인 중국으로의 즉각 추방을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후앙은 다른 사람에게 3천 달러를 주

고 후앙 대신 토플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후앙은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플 점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봤던 토플 시험에서 후앙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른 토플 점수를 가지고 후앙은 대학에 합격하고 학생 비자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발각되어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후앙을 포함해 4명의 중국 학생들은 2017년 5월에 부정 시험 및 대학 입학 부정과 관련하여 보스톤에서 체포되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가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보스톤 불법주차 벌금 대폭 인상키로

불법주차 벌금 최대 50달러까지 인상 방침
시의회가 승인 할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불법주차벌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보스톤 시는 보스톤의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좀더 대중교통 및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부차량 유입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불법주차 벌금을 최대 \$5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차 벌금으로 확보된 연 5백만불의 수익금은 버스전용차로를 만들고 이를 매끄럽게 유지하기 위한 대중교통 유지원을 신규 고용한다. 또 사거리 신호를 개선해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우버 등 라이드헤일링 서비스차량 지정 정차구역을 만들어 이로 인한 정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도 더욱 강화한다.

보스톤 시 마틴 월시 시장의 새로운 보스톤 시 교통개선 정책은 보스톤 시의회와 보스톤의회 앤드레 캠벨 의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의 승인을 확보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보스톤 시가 제안한 새로운 불법주차 벌금은 이중주차의 경우 \$45에서 \$75로 오른다. 거주민전용주차구역위반은 \$40에서 \$60으로 미터요금 초과 주차의 경우 \$25에서 \$40로 오른다. 가장 큰 폭인상은 거리

청소시간 위반으로 \$40에서 \$90로 무려 \$50이나 오른다.

크리스 어스굿 보스톤시 도로국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위의 벌금 인상 항목들은 보스톤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위반들 11가지를 골라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시의 당면한 교통 정체해결을 위해 보스톤 시는 차량을 관리하는 것보다 바이킹, 도보이동, 대중교통 등 교통흐름 향상의 대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보스톤 시는 20여명의 대중교통 관리요원을 고용해 버스전용차선을 관리하고 신호테크놀로지를 향상시켜 버스의 흐름을 빠르게 할 계

획이다. 특히 보스톤은 처음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한다. 로슬린 데일의 워싱턴 스트리트의 이 전용차선은 아침 출근시간대 보스톤 방향 거리 주차 공간을 없애고 버스전용차로로 바꾸게 된다. 이미 보스톤시는 지난해 2번의 시험을 거친 적이 있다.

보스톤 시는 약 2백만불을 투자해 도로를 재포장하고 800여개 신호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일부 혜택을 운전자들에게도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미셸 우 시의원은 이번 보스톤시의 계획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교통과 혼잡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필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우리의 정책 선택과 하부구조 설계 등의 결과이다”라며 이번 보스톤의 교통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의 불법주차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보스톤 경찰, 올해 마라톤 대비 치안에 만전

알려진 위협은 현재까지 전혀 없어
5천명 경찰, 드론, 경찰견 배치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경찰은 올해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도 강화된 치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경기 당일 사복경찰을 포함해 약 5천여 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되고, 공중에는 정찰용 드론이, 지상에는 화학 약품을 감지할 수 있는 경찰견이 순찰을 할 예정이다. 마라톤 코스를 따라 건물 옥상 곳곳에도 경찰 인력이 배치된다.

보스톤 경찰은 지난 3일 보스톤 마라톤 대회를 위한 치안 유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122회를 맞는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대한 위협은 현재까지 전혀 없지만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해 어떠한 위협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에 열리는 보스톤 마라톤 대회의 코스는 보스톤을 포함해 8개의 도시와 타운을 지나게 된다.

5년 전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선 부근에 설치된 2개의

폭탄 때문에 3명의 관중이 사망하고 26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테러 사건 이후 보스톤 마라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큰 행사에서는 어김없이 경계 수준이 강화되었다.

당시 폭탄 테러의 범인인 차르나예프 형제 중 형은 체포 과정에서 도주 중 사살되었으며, 동생은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FBI 보스톤 지부의 해럴드 쇼 특별 요원은 “현 시점에서 FBI 나 다른 어떤 연방 정부, 혹은 주 정부나 타운 관계 당국에 알려진 마라톤과 관련된 수상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보스톤 경찰은 알려진 위협이 없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주변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에 연락을 달라고 보스톤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jsi@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트럼프, 주방위군 멕시코 국경 배치 서명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주(州)방위군을 배치하는 대통령 선언(proclamation)에 4일 서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상황이 위기 지점에 도달했다"며 "우리 남부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 상태는 본질적으로 안전과 안보, 미 국민들의 주권과 얽힌다. 내 행정부는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2008년에 실시된 주방위군 파견과 유사한 것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인력 등을 돕기 위해 남부 국경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에도 주방위군이 국경 감시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에 배치된 적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남부 국경을 건너 입국하는 불법이민자들을 겨냥한 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그는 전날 발트해 국가들과의 백

악관 오찬자리에서 "(국경) 장벽과 적절한 안보 상황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군을 동원해 국경을 지킬 것"이라며 처음으로 주방위군 투입을 암시했다.

이날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대통령이 국방부·국토안보부에 우리 주지사들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지사들은 우리의 남서부 국경에서 국경순찰대를 돕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또 닐슨 장관은 올해 들어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불법이민자 체포 건

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4~2016년 수준으로 늘었다며 "이전의 불법이민 수준이 표준으로 자리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불법이민자 체포 건수는 총 7만2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6018건에 비해 9%가량 늘어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반(反)이민 기조를 꺼내든 배경으로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국경 장벽'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건설 비용을

25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의회는 지난달 가결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6억달러만 배정했다.

또 최근 중미 국가에서 1500여명 규모의 캐러밴 이민 행렬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이 됐다.

다만 캐러밴 이민을 주도하는 '국경 없는 사람들'(푸에블로 신 프론테라스)은 이날 행렬의 80%가 멕시코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망명 의사가 강한 소수는 자체적으로 미국을 향한 방침이다.

soho0901@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 공군의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

미군 전투기·헬기 추락 잇따라, 이틀새 3건 발생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군 항공기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이틀새 국내외 미군 주둔지에서 모두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 1대가 4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인근에 추락했다.

미 공군은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 소속 전투기가 오전 10시30분쯤 네바다 시험훈련장에서 정기 훈련 비행을 하던 도중 추락했다"며 "현재 조종사의 생사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미군에선 전날에도 2건의 추락 사고 발생했다.

미 해병대 제3해병항공단 소속 CH-53E '슈퍼 스텔리온' 헬리콥터 1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추락해 승무원 4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날 아프리카 지부티에서도 해병대 소속 AV-8B '해리어 2' 공격기 1대가 추락했다.

그러나 AV-8B 조종사는 추락 직전 탈출해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미 중부 해군 사령부가 밝혔다.

ys4174@news1.kr

물러, 트럼프 수사 대상이지만 현재 목표는 아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물러 특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속하지만 현재로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표(target)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 보도했다.

물러 특검팀은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캠프 참모들이 이에 연गे 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왔다.

WP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물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 대상(subject of the investigation)으로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물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에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들과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allday33@news1.kr



로버트 물러 특별검사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형제 떡집

GRAND 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미 무역적자 9년반 만에 최대치 근접, 대중 적자는 감소

(워싱턴 로이터=뉴스1) 양재상 기자 = 지난 2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9년 반만에 최대치에 근접했다. 수출입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전월(1월)보다 1.6% 늘어난 576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치다.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은 568억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전월 기록은 566억달러에서 567억달러로 확대 수정됐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품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2008년 7월 이후 최대였고, 서비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2월 무역적자 증가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대중(對中) 상품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8.6% 줄어든 293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멕시코에 대해서는 46.6% 늘었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2월 실질 무역수지는 691억1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전월에는 699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월 실질 무역적자는 지난 4분기 평균 수준인 668억1000만달러를 웃돌고 있다.

2월 상품 수출은 2.3% 증가해

1372억달러를 기록했다. 산업자재와 소모품의 출하, 자동차와 엔진의 판매가 증가세에 기여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에는 변화가 없었다.

상품 수입은 1.6% 늘어난 2142억달러를 나타냈다. 식품, 산업자재 및 소모품, 자본재 수입이 규모를 끌어올렸다.

서비스 수입은 478억달러로 전월의 468억달러보다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계올림픽 관련 로열티와 방송 라이선스 요금의 영향이 컸다.

미국의 대중 수입은 14.7% 감소했다.

francis@news1.kr



핫 데뷔 스포티파이 정작 밀레니얼들은 미지근

(로이터=뉴스1) 배상은 기자 = 뉴욕 증시에 시끌벅적한 데뷔식을 치른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회사 스포티파이(Spotify)가 광범위한 세대의 투자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작 스트리밍 서비스의 주고객층인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일반적인 기업 공개(IPO)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존 주주와 직원들의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직장장' 방식으로 진행돼 특히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신주 공모를 통한 자본 조달이나 증권인수업자의 시장 수급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수요는 있었고, 상장 첫날인 3일 스포티파이 주가는 12.9%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이튿날에는 주당 145.87달러까지 전일 대비 2.1% 반락했다.

지난해 실시된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냅(Snap)의 IPO의 경우 스냅챗의 핵심 이용층인 밀레니얼 세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스포티파이는 밀레

니얼세대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투자사 피델리티는 "밀레니얼이나 밀명 'X세대'(1965년~1976년 사이 출생)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스포티파이 거래에 더 활발한 편"이라며 "스포티파이 거래를 연령층별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밀레니얼보다 거의 3분의 1 이상, 'X세대'보다는 20% 이상 많다"고 밝혔다.

사실 스포티파이 상장을 앞두고, 이용층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톡트위츠(StockTwits)에서 스포티파이에 대한 강세전망은 40%에 그쳤다.

스톡트위츠의 피어스 크로스비 개발담당 이사는 "스포티파이 상장 날짜가 다가오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됐다"며 "현재도 지금까지처럼 약세 포지션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또 한 스톡트위츠 이용자는 스포티파이가 과연 애플과 같은 회사로부터 수익을 내고 경쟁을 펼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baebae@news1.kr

페북 사용자정보 훨씬 더 많이 유출, 최대 8700만명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페이스북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당초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영국의 정보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는 4일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수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500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콘퍼런스콜에서 8700만명이란 숫자는 최대 추정치라고 밝히며 "87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한다.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다시금 인정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은 반드시 전 부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처럼 세상에 전례없던 것을 만들 때 당신이 망쳐버리는 것들이 있다"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는가이다"

라고 말했다.

마이크 슈뢰퍼 페이스북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오는 9일까지 이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도구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더이상 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CA 유출 여부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페이스북은 새로운 이용약관에 개인정보가 추가된 것이 어떻게 수집되고 공유되는지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업계의 정보 보호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 각국의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soho0901@news1.kr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화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점심 뷔페 시작!
월-토: 11:30~2:30
일, 공휴일: 12:00~3:00

불판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주재원 비자(L-2)
- ✓ 특기자 비자(O-1, P-1)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취업이민
- ✓ 교수/연구직 이민
- ✓ 투자비자(E-2)
- ✓ 투자이민(EB-5)
- ✓ 가족초청이민
- ✓ 시민권 신청
- ✓ 주방재판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확정...민주 김경수와 대결

홍준표, 김태호 반드시 이길 후보, 제 업적 이어갈 것
김태호, 경남의 오랜 친구 올드보이, 경남 지키겠다

(서울=뉴스1) 이후민, 구교은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추대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이길 후보로 당협위원장·국회의원 전원의 추천으로 선정했다"며 출마를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경남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성지"라며 "경남을 지켜 대한민국 가치를 꼭 지키고 싶다"고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지사는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와 대결을 펼치게 됐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을 열고 김 전 지사에게 경남도지사 출마를 부탁했다.

홍 대표는 "경남은 김태호 지사를 이어받아서 제가 지사를 했고, 제가 지사를 하고 난 그 업적을 다시 김 지사가 이어갈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며 "우리 경남은 경남 출신 의원들, 당원협의회가 한마음이 돼 경남이 압승하는 데 당운을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홍 대표는 "민주당은 후보 선정을 아직 한 사람도 확정짓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렵던 광역단체장 공천 퍼즐을 오늘로서 거의 마무리를 했다"며 "인물난이라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인물 면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지방행정의 행정력을 갖춘 검증된 인물인가(의문이다)"며 "우후죽순 난립하는 후보보다 우리는 각 지역별로 최적의 후보를 한 사람만 선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당 아성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며 "경남 지역은 우리가 사수해야 할

낙동강 전선 최후의 보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올드보이'라고 지목된 것을 언급하며 "경남의 오랜 친구, 올드보이 김태호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는 "고마운 마음으로 당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제 생명과도 같은 경남을 지키고 당의 위기를 지켜내야 하는 이번 선거에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은 한 정치인으로서 큰 영광"이라고 수락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9일 경남 지역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추대 결의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과 '리턴 매치'로 맞붙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상대할 전략에 대해 "회자되는 정치적 논리도 있지만 경남이 너무 어렵다"며 "알토란 같은 조선사업이 문을 닫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준표 당 대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고, 자동차도 제조업도 위기다. 잘 조정해서 새로운 동력을 살려갈 수 있는가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힘 있는 여당이 무던 칼로 구조조정을 다룬다면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저는 경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창원시장 전략공천 결과에 안상수 현 시장이 탈당을 선언하

고 무소속 출마 선언한 것을 두고 "걱정이 많다"면서도 "한차원 높게 경남을 지키고 해야 보수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충분히 화해의 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무총리 후보에도 올랐던 김 전 지사는 "가슴이 아프다"며 "그 말 외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hm3346@news1.kr

오거돈-서병수, 4년만의 '부산' 리턴매치...누가 웃을까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을 이끌 부산시장 선거에서 4년 만의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서병수 현 시장을 각각 공천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에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서병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는 무소속이었지만 야권의 단일후보가 됐던 오

거돈 후보를 제치고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다만 지난 2014년과 2018년의 정치 상황이 현격하게 뒤바뀐 만큼 6·13 지방선거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많다.

부산은 지난 1990년 3당 합당 이후 한국당의 아성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한국당은 부산에서 전승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난 2014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서 시장은 오 전 장

관을 1.31%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게다가 어느 때보다 높은 당청 지지율과 한국당의 저조한 지지율이 맞물리면서 역대 부산시장 선거 기록은 무의미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진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부산에서 승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정당화를 위해 영남권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만큼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통해 교두보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부산·경남(PK) 지역 침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PK 지역을 민주당에 내줄 경우 영남권에서의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감지된다.

goodday@news1.kr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서병수 부산시장

새봄 맞이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쌈 매운탕도 강추!

★
확장
오픈
★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 yelp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PR. 6 - APR. 12, 2018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AVOCADO POLLOCK ROE BIBIMBAP

A NEW FUSION BIBIMBAP, REINVENTED. ENJOY THE FRESH SAVORY FLAVOR.

간단한 재료로 멋스럽게 만드는 H마트 레시피,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신선하고 담백한 아보카도와 짭조름한 명란젓이 어우러진 건강한 비빔밥을 만들어보세요!

Share it @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hmartusa Follow us @hmartusa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Kabocha 단호박
\$0.99

Gobo 우영
\$1.99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Nagaimo 일본 마
\$4.99

RAW NATURE Tofu
자연담은 두부
All Varieties - 14oz/pkg
\$0.99

Lotus Root 연근
\$1.9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99

Ginger 생강
\$1.29

Dragon Fruit 드래곤 과일
\$4.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 통두께
\$6.99

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 생육살
\$5.99

Po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크용 돼지갈비
\$3.49

Chicken Tenderloin 닭안심
\$2.99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 양지 슬라이스
\$7.99

Marinated Sliced Pork CT Butt
양념 돼지 목살
\$4.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Yellow Tail 수협 냉동 방어
\$1.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30-40's
\$5.99

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등등배 절단 꽃게 3.5 - 1.5 lbs./pkg.
\$6.99

Salted Mackerel 자른고등어
\$3.99

Milk Fish 밀크 피쉬 800g
\$1.99

White Bass 화이트 베스
\$2.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YUNG GI Medium Grain Rice
정기미 40 lbs.
\$26.99

KWANG CHUN NONG HYUP Green Tea Seasoned Caviar
갈매기 녹차 볶음 참깨 8.7oz x 100pkgs
\$9.99

CHUNG JUNG BROWN RICE
정미미 40 lbs.
\$12.99

CJ DASHI Beef Flavor Soup Stock
최고급 다시다 2.2lbs.
\$9.99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대상: 정회원 \$1000 및 특별 브로마와 상장 - 총 1명
날짜: 2018. 6. 2(토) 오전 11시 - 오후 4시
신청처: 2018. 6. 23(토)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Overpeck County Park Amphitheater
Overpeck Park, NJ 07051
참가대상: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접수방법: H마트 NY, NJ, PA, MA 매장내 고객센터
접수기간: 2018. 4. 13 - 5. 27
참가비: \$20 (참가 접수시 40%의 장학금 \$80 별도 지급)
수상 발표: 2018. 7. 13 (금)
*참가시 등록하신 이메일로 수상자에게 상금, 상장 발송
시상식: 2018. 7. 14 (토)
문의: 당일 공지
문의처: 고객 서비스 센터 877.427.7386



NATURE'S Sweet Rice
자연담은 참쌀 4 lbs.
\$4.99

HAOREUM Premium Roasted Sesame Oil Lower
해오름 밀도유 파마 드레싱 1 gal.
\$2.99

KIKKOMAN Soy Sauce
기꼬만 간장 1 gal.
\$12.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880g
\$14.99

GOMPO Wheat Flour
곰포 밀가루 5.5 lbs.
\$3.99

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All Varieties 26.11oz
\$2.99

YONG DONG Canned Sea Top Shell
용동산 굴편 14 lbs.
\$5.99

SHIRAKI Japanese Style Sanukiya Udon Noodles
시라키 사누키야 우동 3 lbs.
\$3.99

HAOREUM Dumpling 해오름 만두 Red/Knash/Nagabito 2.85 lbs.
\$4.99

NESTLE Mocha Kit Kat Chocolate Bars
네슬레 녹차 킷캣 4.7oz
\$4.99

DR. CHUNG'S FOOD Vegemil Soy Milk
장생품 베지밀 두유 All Varieties 190ml x 12pkgs
\$12.99

I WANT! Bath Tissue 아이원드 화장실 화장지 20lb/roll
\$9.99

LG On The Body Moist Whipping Bar
온더바디 휘핑바 3.17oz
\$0.99

Back Supporting Neck Cushion
양자 쿠션등받이 \$59.99 - \$39.99
\$2.99

BODY SLIM Hula Hoop
바디 슬림 후프 \$69.99 - \$49.99
\$12.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omissions or error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www.hmart.com 877.427.7386
H MART BURLINGTON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삼성, 노조와해 공작 담긴 6000여 건의 문건 적발돼

삼성 4개 노조, 이재용 면담 요구

(서울=레디앙) 유하라 기자 =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수천 건의 문건이 나왔다. 이 중엔 2013년 공개된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단서를 포착하고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와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보관하던 외장 하드에서 노조 와해 공작 등이 담긴 6000여건에 달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 와해 내용 등이 담긴 외장 하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분석 작업은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이번 주까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실제 삼성그룹에서 노조 와해 행위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검찰이 확보한 삼성그

룹의 노조 와해 관련 문건에는 삼성이 노조설립을 와해하기 위해 세운 '노사전략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무노조 경영 전략'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노조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만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노조 설립은 초기에 와해해야 한다"는 대응전략을 짜도록 했다. 이는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151쪽 분량의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내용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문건엔 초기 노조 와해를 위한 지시 사항을 비롯해 노조 설립 시도에는 '알박기 노조'로 대응하고,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직원들은 문제 인물로 분류해 사찰을 지시했다.

앞서 삼성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한 직후 "내부 검토용"이라고 했다가, "삼성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다"라고 노조 파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6년 삼성그룹의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검찰에 미제로 남아 있었다.

금속노조와 민변 등은 같은 해 10

월 S(에스)그룹 문건 작성, 노조 파괴 작업 등과 관련해 이견희 회장, 최지성 사장(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삼성에버랜드 임직원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견희 회장, 최지성 사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삼성에버랜드 부사장 등 4명은 각각 벌금 500만~1천만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했다. 특히 삼성은 벌금형을 받은 에버랜드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징계 대신 승진을 시키며 관리자들이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지난 2013년 검찰이 삼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을 환기하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삼성 노조파괴 문건 재수사를 시작으로 삼성 내 무노조 경영 원칙이 깨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또 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 점 의혹 없이 검찰이 스스로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삼성은 불법 경영세습, 배임과 횡령, 삼성 장학생 관리, 노조설립 시 미행과 납치, 감금까지 서슴지 않는 무노조 전략을 실행에 옮긴 노조파괴 불법왕국이었다"면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



삼성그룹 4개 노조 기자회견(사진=금속노조)

선 것 보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철퇴를 내리고 삼성의 모든 계열사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사 4개 노동조합은 삼성의 노조파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면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삼성에스원노조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서초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업종과 산별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동

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며 "삼성그룹 4개 노동조합은 각자의 요구를 들고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삼성 노동자들은 각기 사업장에 노조를 설립했으나 삼성은 교섭 태도, 노조간부 사찰, 승진 탈락 등 노조 무시, 탄압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는 이 지독한 무노조 집착을 시작한 창업주의 상속자가 수습해야 할 때"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시대착오적인 강박증으로부터 삼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이 부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근혜 선고 생중계 예정대로, 가처분 신청 각하

法 재판부의 권한 행사, 민사 소송 대상 아냐 朴 직접 낸 신청 각하, 변호인 통한 신청 보정명령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원이 6일 예정된 본인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를 상대로 낸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의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를 통해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청서를 통해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

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 중계 결정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로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본질적 성격이 유지되고 시청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최종심의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의 결론을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 공공의 이익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보정명령

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장 선고공판이 다음 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지적한 사안을 고쳐서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일정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3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 중 일부는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불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ysh@news1.kr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MB 9일 구속기소 방침 재판 넘긴 뒤 추가수사기로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비자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추가혐의 관련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오는 9일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김윤옥 여사(71)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이 전 대통령을 다음주 초 기소할 예정이고 9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감 이후 3차례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구속기간을 닷새 남겨둔 검찰은 우회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



이명박 전 대통령

구서에 담긴 혐의보강에 매진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이 전 대통령만 우선 기소한 뒤 순차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혐의의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뇌물수수, 선거개입, 비자금 등과 관련한 이 전 대통령 추가 수사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110억원, 다스 관련 횡령·비자금 350억원 등을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엔 뇌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환수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eonki@news1.kr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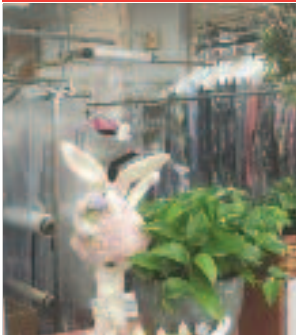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Business Listing



세탁소 매매

Haverhill 에 위치
매상 \$150,000 세탁소
1,100 Sq. Ft. 24년째 운영중.
안정적인 매상.

Asking **\$135,000**



세탁소 매매

년매상 \$250,000 이상
안정되고 물안에 좋은 자리 위치
안정된 고객층 및 발전 가능성 +

Asking **\$230,000**



옷가게 매매

보스톤에 위치한 옷가게 매매
인벤토리 포함.
2,000 Sq. Ft.

Asking **\$150,000**

NEW LISTINGS

Commercial



건물 매매

보스톤 남쪽.
세탁소 입점된 단독건물
세탁소와 함께 구입 가능

Asking **\$545,000**

Residential



앤도버 콘도 매매

럭셔리 타운하우스
3852 sqft, Bed:3 Bath:4,5
필립스아카데미 5분거리

Asking **\$995,000**

Commercial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Fish Market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000 이상, To-go매뉴 Extra 수입.
소비자 리뷰가 매우 좋은 가게. 넓은 주차공간

Asking **\$180,000**

Business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Business



세탁소

Brookline 좋은 위치
연매상 \$220,000 이상, 보장된 수입
1년된 Hydro Carbon 기계

Asking **\$23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세탁소 매매
좋은 동네, 안정된 고객층
800 Sq. Ft. 년 매상 \$180,000

Asking **\$130,000**

Business



코인세탁소 매매

보스톤에서 15분거리에 위치한 코인세탁소, 년 매상 \$350,000+, 2,500 Sq. Ft.
안정된 매상,고객층 및 여유로운 주차장

Asking **\$450,000**

Business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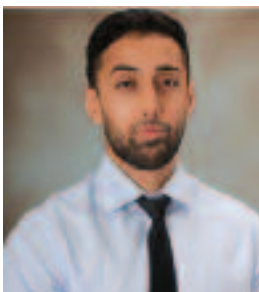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Condominium
120 Parker St. - Unit 26
Acton, MA
Asking price: \$189,900
Listing Agent: Laura Rakauskas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Town House/Condo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Asking price: \$284,9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6 Abbey Road - Unit 17
Sherborn, MA
Asking: \$3,750/mo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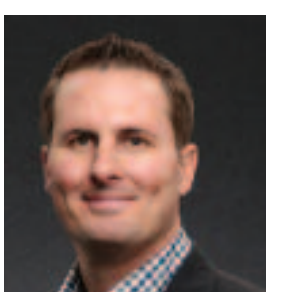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905C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Asking price: \$61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69 Qunit Ave. - Unit 26
Boston,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Meadow St.,
Dedham, MA
Asking price: \$599,9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731 Beacon St. Unit 301
Brookline,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Town House Rental
53 South Walnut St. - Unit 2
Quincy, MA
Asking price: \$2,3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Single Family
3 Larch Rd.
Ac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Teresa Vitelli
781.619.0473



Johanna Parlon
978.501.4753



M. Keith Peifer
304.963.292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 양지병원

충분한 수면과 영양 보충해야 '춘곤증 안녕~'

한국의 요즘 날씨는 흔히들 환절기라고 애기를 한다. 겨울에서 봄철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소위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엄밀히 말하자면 춘곤증은 의학용어는 아니며, 우리 몸이 계절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을 일컫는 단어다. 봄에 증상이 나타나서 춘곤증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 만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휴람 네트워크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김진리 과장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각종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소의 요구량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평소와 비슷한 식사를 유지하더라도 이러한 영양소의 상대적 결핍으로 인해 춘곤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더불어 "환경 변화에 신체 리듬이 적응할 수 있도록 운동과 수면 등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춘곤증, 환절기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부작용이 원인

몸이 움츠러들던 겨울에서 따뜻한 봄철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별다른 질병이 없음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하였을 때 '춘곤증'이라 부른다. 춘곤증은 졸음과 피로 외에도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춘곤증의 원인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추정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환경변화에 따른 신체 부 적응을 들 수 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몸에서 비타민B1나C 그리고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겨울 환경에 적응했던 신체리듬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피로도 춘곤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춘곤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특히 춘곤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봄철 환절기는 입학, 개학, 취직 등 환경 변화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체 리듬을 뒤흔들어 춘곤증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수면, 식습관 등 개선 통해 증상 완화 및 예방... 증상 오래 계속되면 다른 질환 의심해야

춘곤증은 그 자체로는 질병이 아닌 만큼 춘곤증이 의심된다고 병원을 바로 방문할 필요는 없다. 춘곤증은 신체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으로, 1~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춘곤증으로 인해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과 식습관 개선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춘곤증의 증상을 느끼는 기전에서 비타민 및 무기질 부족이 기여하는 만큼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단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음주나 흡연, 커피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규칙적이면서 충분한 수면도 춘곤증 예방에 필수적이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 5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더불어 전날 잠을 설쳤을 경우에는 20~30분 정도의 낮잠도 도움이 된다. 다만 30분 이상의 낮잠은 밤잠에 방해될 수 있어 삼가야 한다. 그 밖에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 또한 신체에 활력을 줘 춘곤증 예

방에 도움이 된다.

춘곤증은 그 자체로는 질병은 아니다. 그러나 춘곤증의 증상인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권태감, 식욕 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춘곤증이 아닌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피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빈혈, 간 질환, 당뇨, 갑상선 이상, 우울증 등이 생겼을 수 있다.

휴람 네트워크 H+양지병원 김진리 과장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춘곤증이 아닌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많은 질환들이 나른하고 피로회복이 잘 되지 않거나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 춘곤증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 한달이상 이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꼭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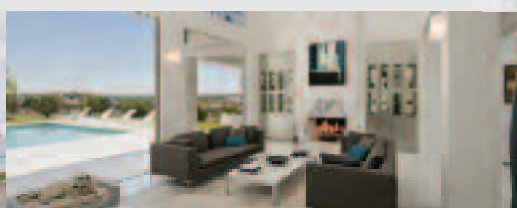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Jay Lee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금주의 LISTINGS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얼스톤 88 마켓 푸드 코트 안 성업중인 식당

ASKING **\$187,5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LISTINGS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95,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49,000**



Dedham에 위치. Single Family House (7 bedr/4 bath, finished basement)

ASKING **\$745,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李家 Rega's Grill
Korean BBQ · Korean Buffet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고장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도연맹	978-407-7554
국제경찰가장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978-27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대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광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상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서명여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49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613-5372
스프링필드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 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뱀열교회	978-274-2369
엠헤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헤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슬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킴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권시영성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정판청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밍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셀(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톤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수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위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 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프루먼셀(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먼셀(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Premier Ralty Group	617-642-3156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병원(D내과)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발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치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몬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롱치	978-263-4592
기타	
메모리열병원(병리)	203-330-8080
문허어림 보정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뉴스타부동산	781-654-5281
애나정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위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 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프루먼셀(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먼셀(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Premier Ralty Group	617-642-3156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터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잔치피시	781-862-7984

앤젤라 엄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톤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톤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톤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2017-18 조기지원 결과 개관 (2)”

대학 입학이 정말로 치열하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 상위권 대학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2014년에 스탠퍼드대학 학부입학처장인 리처드 쇼(Richard Shaw)는 5%라는 역대 가장 낮은 합격률을 발표하곤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합격률이 그렇게 낮아질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스탠퍼드는 6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되었는데, 전체 지원자 가운데 거의 96% 이상이 불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은 단지 4.3%(2,040명)에 그쳤다. 하버드도 이 전설적인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고교 졸업생 중에 역대 최저인 4.59%만 합격 시킴으로써 42,740명의 총 지원자 가운데 1,962명만 받아 들였다.

올해 각 대학의 정시지원 결과가 이제 대부분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지난 20년 동안 광적인 정도로 치열했던 경쟁률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대학 입학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일까? 대학이 학생을 이전에 비해 적게 선발하기 때문일까? 대학이 갈수록 신입생 정원을 줄이기 때문일까? 간단히 답하자면 그것 때문이 아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은 지난 20년 넘게 신입생 정원을 동일하게 유지해 왔다. 심지어 예일, 컬럼비아, 프린스턴, 그리고 코넬 같은 대학들은 최근에 오히려 신입생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했다. 작년에 예일은 역사상 가장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합격률이 낮아지는 주된 요인은 명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수가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내 상위권 25-30개 대학들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지원자들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입학이 더 힘들게 되었다. 2007년 스탠퍼드 대학의 총 지원자 수는 23,956명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기록적인 47,450명이 지원함으로써 10년만에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컬럼

비아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두 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2007년 지원자 수가 18,081명이었는데, 올해는 40,203명이 지원하였다. 도대체 이 많은 지원자들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지원자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전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이 공통지원양식(Common Application)을 채택함으로써 지원서 작성이 쉬워진 학생들이 더 많은 대학을 지원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한 학생이 대략 7-8개 대학을 지원하였다면, 요즘에는 15-16개 정도가 보통이 되었다. 둘째, 대학 진학 열풍이 거세지면서 불안해진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원자 수는 증가하고 합격률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다시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듬 해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외국인 지원자의 폭발적 증가다. 특히 중국 본토와 인도 같은 나라에서 뛰어난 학

생들이 미국 명문대학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대학 진학 광풍 속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 많은 대학에 지원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어떤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보충자료로 에세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의 지원서와 에세이의 “질”(quality)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지원서와 에세이를 대학에 막 뿌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전략”(strategy)이 생명이자. 대놓고 막 쏘면 도리어 표적을 명중시킬 확률이 떨어진다. 집중해서 쓴 화살일수록 명중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파악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 때 자신이 가진 역량이 그 대학에 현실적으로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하고 양질의 치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y Russian Eastern Church

성목요일 (3/29)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3/30)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3/31)
9pm-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1)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56
617-558-7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IT'S TIME TO TRAVEL

4989 부동산 매매는 ———

BH HS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제 20회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8년 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



디트로이트 광역시 열개의 지역사회 즉 <미시간 제 6 구역>을 대변하는 정치인 훈영합국의원은 미시간 대학 앤아버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대학재학 중엔 당시 린리버스 미시간주 연방상원의원 워싱턴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지내며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졸업 후 AFL-CIO에서 노조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며 민주당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2년 주-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6년동안 삼선 하원의원을 지냈다. 2010년 미시간주 의정사에서 한인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되었고, 2014년도에 재선에 성공했다.

행사 일시	2018년 4월 14일 (토) 6:00 PM
행사 장소	Lexington Elks Club 렉싱턴 엘크스 클럽 959 Waltham St. Lexington, MA (781.862.9759)
티켓 가격	일반: \$60, 학생 및 시니어: \$30 (저녁포함)
주 연설자	훈영 합국 (HOON-YUNG HOPGOOD) 미시간주 한인 상원의원
행사 문의	이경해 회장 (580.962.2689) 김성균 이사장 (617.799.7033) Stephen Suh 사무총장 info@kac-ne.org

엔터테인먼트 : 유지은 소프라노 가수, 정은혜 피아니스트/ 작곡가

후원단체

대한민국주보스톤총영사관, RI 한인회, ME 한인회, NH 한인회, RI 경제인 협회, 평통자문위원회, 보스톤한미예술협회, NE 한인교회 협의회, NE 한국학교 협의회, NE 세탁인협회, 보스톤한미노인회, 이중문화NE 지부, NE 이화여고 동창회, 보스톤체육회, NE 한국학교, NE 과학협회, 보스톤 봉사회, 성균관대학동창회, NE 서울대학교 동창회, 강원도민회, 제노스코, Philharmonia Boston Orchestra.

www.kac-ne.org

유재석 새 예능 '범인은 바로너!'

5월 4일 넷플릭스 공개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Netflix)는 오는 5월 4일 최초의 한국 예능 넷플릭스 오리지널 '범인은 바로너!'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재석, 안재욱, 김종민, 이광수, 박민영, 엑소 세훈, 구구단 세정으로 구성된 탐정단과 매주 새로운 특별 출연진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제작은 장혁재, 조효진, 김주형 PD의 컴퍼니 상상이 맡아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버라이어티 쇼가 탄생할 것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범인은 바로너!'는 서로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닌 7명의 허당 탐정단이 매 에피소드마다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풀어가는 추리 예능이다. 'X맨', '런닝맨', '패밀리가 떴다' 등의 히트 예능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한 장혁재 PD, 조효진 PD, 김주형 PD 등 스타 제작진을 보유한 컴퍼니 상상과 의기투합해 제작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매주 2편의 에피소드를 5주에 걸쳐 공개,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시청



자들을 만난다. 7명의 탐정단이 각종 미스터리 사건을 풀어가며 끝을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담긴 흥미진진한 전개와 유머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이끌 7명의 탐정단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국민 MC 유재석, 연기와 예능 모두 활약하고 있는 이광수, 그리고 예능 대상 출신의 김종민까지 예능 베테랑들이 합류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예능에 출연

하는 배우 박민영, 노련한 입담과 유머로 예능 섭외 1순위로 손꼽혀온 안재욱, 그리고 젊은 에너지로 활력을 불어넣을 한류스타 아이돌 엑소의 세훈과 구구단의 세정이 합류해 새로운 예능 조합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매회마다 새로운 특별 출연진의 합류로 보는 재미를 더할 것이다.

오는 5월 4일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의 1억 1700만 명의 회원에게 공개된다.

ichi@news1.kr



'7년의밤' 현장 비하인드 스틸 류승룡X장동건 환한 웃음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영화 '7년의 밤'(추창민 감독)이 현장 비하인드 스틸을 공개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4일 '7년의 밤'의 주역인 류승룡, 장동건, 고경표, 송새벽의 모습이 담긴 현장 스틸 컷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에는 몰입감 넘쳤던 연기 현장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배우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먼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살인자가 된 최현수 역의 류승룡은 촬영 대기 중 카메라를 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미소를 자아낸다.

또 딸을 잃고 지독한 복수를 계획하는 남자 오영제로 분한 장동건이 추창민 감독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어 이들의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이어지는 스틸은 모든 것을 목격한 남자 안승환 역의 송새벽과 살인자의 아들 최서원 역의 고경표는 목격했던 현장 분위기에도 중간중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담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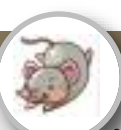
한편 '7년의 밤'은 한 순간의 우발적 살인으로 모든 걸 잃게 된 남자 최현수(류승룡)와 그로 인해 딸을 잃고 복수를 계획한 남자 오영제(장동건)의 7년 전의 진실과 그 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정유정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했다.

eujenej@news1.kr

4월 8일 - 4월 14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문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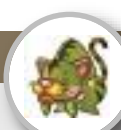
쥐띠 |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운수: 긴 시간 고만하게 하던 일이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날아갈 듯이 출가분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원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던 고민과 갈등의 늪에서 벗어나입니다. 한결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



소띠 |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운수: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되어 엉킨 실타래처럼 풀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돌아오자마자 나갈 일이 생깁니다. ●애정: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선택이 지나고 보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1, 14일 길일. 9, 1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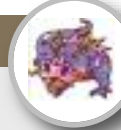
범띠 |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운수: 정성을 들이고 신경 쓴 만큼 그에 보답하는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니 힘든 시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금전: 굳이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매상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 모처럼 마음이 통하는 상대를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토끼띠 | 항상 침착하게

●운수: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보다 나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금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생각지도 않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침착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애정: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



용띠 | 솔직하게 털어놓고

●운수: 당장은 인정받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금전: 정상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결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애정: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해결책도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3일 주의.



말띠 | 상식선에서 처리해야

●운수: 무슨 일든 경우에 맞게 행동하고 상식선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더디게 가고 답답한 것 같아도 제대로 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금전: 밖에 일이 잘 되어도 집안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가족에게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애정: 때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주고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9, 11일 길일. 12, 1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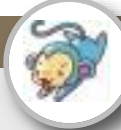
말띠 |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운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자식이 하는 잘못된 고스란히 부모가 지고야 할 몫이 됩니다. ●금전: 자신이 지금 힘들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금방 무너질 모래성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애정: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 하지 마라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2일 길일. 8, 14일 주의.



양띠 | 배짱이 있어야

●운수: 무조건 양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신호가 오면 잠시 멈춰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전: 약간의 회색이 필요합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눈앞의 적은 이익은 내어주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애정: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9, 13일 길일. 12, 1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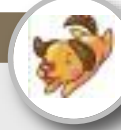
원숭이띠 | 행운의 여신의 저울이 내 쪽으로

●운수: 행운의 여신의 저울이 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고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손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비교적 원만하게 흘러가는 운세입니다. 맘을 흘려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애정: 자꾸 생각하게 되고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생기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1, 14일 길일. 8, 1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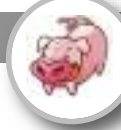
닭띠 | 원칙을 고수해야

●운수: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바른 것이 이깁니다. ●금전: 소리대로 흘러가야 일도 잘 성사됩니다. 특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애정: 미사여구가 들어간 화려한 말보다도 진정성이 담긴 한 마디가 더 강한 힘으로 상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2일 길일. 8, 14일 주의.



개띠 |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를

●운수: 코앞에 있는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에도 벅차서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금전: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낼 때에는 제대로 된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애정: 의견을 합쳐야 할 일을 두고 서로가 딴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1일 길일. 9, 14일 주의.



돼지띠 | 다시 잘 생각해야

●운수: 남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구매로 인해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다시 잘 생각하세요. 한 번 믿음이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고 오래 지속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4일 길일. 8, 10일 주의.

구직

광고 문의 617-254-4654

집 또는 오피스 청소 전문
무료 견적, 20년 경험, 추천서 가능
T. 781-289-5552

웨스트보로 한국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레스 구함.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T. 508-366-8898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 헤이버힐(Haverhill, MA)에 위치한
Breakfast & Lunch Restaurant 매매합니다.
Tel. 603-361-7350 (Mimi) 전화연락주세요.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재미 보다 힐링" 소지섭x박신혜, 자연이 선사할 행복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소지섭과 박신혜가 시청자들을 '숲속의 작은 집'으로 초대한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살게 된 두 사람, 나영석 PD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힐링을 안길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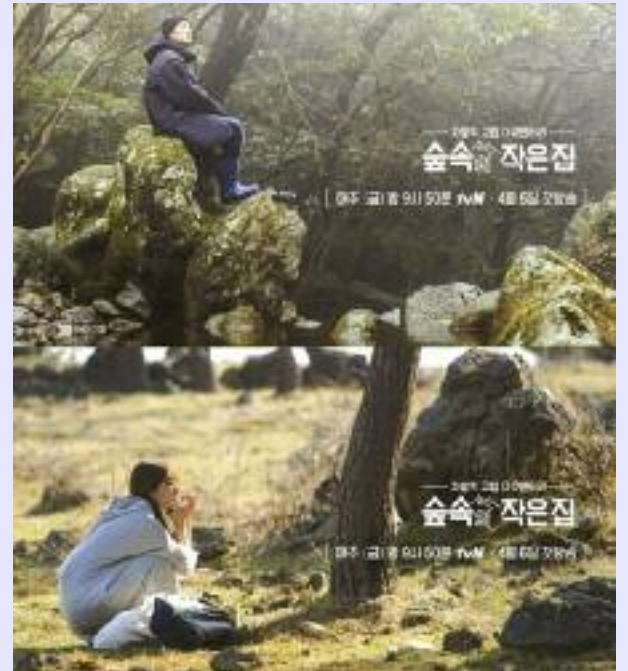
'숲속의 작은 집'은 현대인들의 바쁜 삶을 벗어나 꿈꾸고 싶은 현실을 대신해 매일 정해진 미니멀 라이프 미션을 수행, 단순하고 느리지만 나다운 삶에 다가가는 나영석, 양정우 PD의 새 프로그램이다.

특히 '숲속의 작은 집'에는 배우 소지섭과 박신혜가 출연을 확정지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두 사람은 '피실험자'로 출연, 나무와 넓은 들판으로 둘러싸여 속세와 단절된 듯한 숲속의 작은 집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자연과 자기 자신 뿐인 이곳에서 오롯이 혼자서만 생활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행복 실험'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숲속의 작은 집'에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도 함께 전할 예정이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만의 매력을 통해 하나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사슴과 곤충, 새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면이 평화로운 느낌을 선사,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소지섭, 박신혜의 미니멀 라이프는 어떨까. 나PD는 "시청자들이 두 사람의 집을 비교해보시면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집 차이가 보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어떤 삶



의 방식이 옳다거나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살아보면 어떨까를 제안하는 거다. 삶을 배워가는 신혜씨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며 "소지섭씨는 이미 그렇게 미니멀 라이프

) 살고 계시더라. 이미 삶이 거의 스님의 삶이다. 저렇게 사는 것도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느끼게 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aluemchang@news1.kr

김생민 사건 여파? '송은이 김숙 비밀보장' 이번 주 휴방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비보티비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 비밀보장' (이하 '비밀보장')이 한 주 휴방한다.

4일 비보티비 공식 SNS에는 "팟캐스트 비밀보장 업로드를 한 주 쉬게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비보티비는 팟캐스트 '비밀보장'과 '김생민의 영수증'을 제작한 곳. '비밀보장'

의 휴방은 김생민 성추행 사건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보티비는 김생민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후 업로드됐던 팟캐스트 '김생민의 영수증'을 전부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일 김생민 성추행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김생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breeze52@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다방에서 커피를 팔다니?

다방에서 커피를 팔다니, 이젠 마치 중국집에서 파스타를 파는 것만큼이나 안 어울린다. 자고로 중국집에선 ‘짜장면’을 팔고, 다방에선 ‘차’를 팔아야 맞는다. 적어도 어원상으로는 그렇다는 말. 왜 그럴까? 이번 호에서는 tea가 지나는 ‘길’을 따라가 본다.

세작, 우작을 구분하고 다도를 논하는 수준의 차 애호가들은 물론이거니와, 홍차와 녹차를 오로지 색깔로만 구분할 줄 아는 나 같은 문외한도 차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쯤은 안다. 중국인들이 발명한 종이와 화약은 서서히 역사적 소명을 다해가고 있지만, 차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을 뿐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점점 더 깊이와 풍미를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음료로서의 tea는 Boston tea party라든가 1990년대 말의 미국 정치사에서 시끄러웠던 tea party movement에서 보듯이 중요한 역사적 고비마다 흔적을 남긴 정치 용어가 되기도 했다.

영어 tea는 중국어로 차라 쓴다. 우리 이 한자를 ‘다’ 혹은 ‘차’라 발음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茶房이라 쓸 때는 ‘

다’로 발음하는데, 찻집이라 쓸 때는 ‘차’로 발음한다. 같은 글자가 이중으로 발음되는 이유는 이 글자가 중국의 두 가지 방언에서 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경 방언에서는 茶를 구개음화시켜서 ‘차’로 발음한다. 반면에 상하이나 홍콩 등에서 사용하는 광둥어에서는 구개음화되지 않은 ‘테’로 발음한다. 이는 마치 밭 전(田)자를 북경어에서는 구개음화시켜서 ‘전’으로 발음하지만, 광둥어에서는 구개음화되지 않은 ‘틴’으로 발음하는 것과 같다.

중국의 차는 마카오를 점령한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1550년대에 처음으로 서양에 전해졌다. 북경어 발음인 cha는 포르투갈어에서 그대로 cha가 되었지만 영어에서는 chaa, tscha, chia 등으로 쓰였다. 인도에서도 chai라 한다. 필자는 지금도 아그라 기차역에서 마셨던 인도 차이의 추억을 잊을 수 없다. 역에서는 놀랍게도 종이 컵이나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1회용 잔에 차이를 팔았다. 우유를 듬뿍 넣은 차이를 마신 후, 빗살무늬 토기처럼 생긴 흙 잔을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아까워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다. 1회용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그릇은 그릇이니까. 물론 예상대로 귀국해서 집을 풀었을 때 그 토기 잔은 산산조각이 나있었지만, 타지마할로 가던 기차역에서 1회용 토기잔에 차이를 마시던 추억은 고스란히 되살아났었다.

1590년대까지만 해도 영어에서 cha, tcha, chia로 쓰던 이름은 1650년대가 되면서 tay, thea, tey, tee 등으로 쓰이기 시작한다. 왜 그랬을까? 말레이를 점령한 네덜란드 상인들이 말레이어 tey를 유럽에 전파했기 때문이다. tey는 중국의 아모이 방언인 te에서 온 것이다. 쉽게 말해 cha는 구개음화된 북경어 발음이고, te는 구개음화되지 않은 광둥어 발음이다. 재미있게도 thé(불어), te(스페인어), Tee(독어), thee(네덜란드어) 등은 모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를 통해 전파된 이름이고, chai(러시아어), cha(페르시아어), tsai(그리스어), shay(아랍어), çay(터키어) 등은 모두 북경어에서 전해진 이름이다.

우리말에서는 두 가지 발음 모두 사용하니, 썩먹고 알먹고라고 해야 하나. 같은 글

자인데도 茶房이라고 쓸 때는 “다방”이라고 읽고, 綠茶나 紅茶라고 쓸 때는 “차”라 발음한다.

서양에 전해진 tea는 세계사의 큰 물줄기를 뒤바꾸는 역할을 한다. 보스턴 tea party 말이다. 1773년 영국의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은 신대륙 식민지인들이 영국으로의 출항을 기다리며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배에 실린 차를 불태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은 결국 미국의 독립전쟁을 일으킨 도화선이 되었으니 tea의 역사적 소명이었다고나 할까. 시간을 한참 건너뛰어 2009년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보스턴 tea party에서 이름을 딴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남부와 중부에서 기승을 부린 tea party movement는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지도자 중의 한 명이었던 무명의 알래스카 주지사 세라 페일린을 일약 부통령 후보로 올려놓기도 했다. 그건 그렇고, 밀크와 티를 반반씩 섞으면 milk tea일까, tea milk일까? 쓸 데 없는 궁금증이다. 파곤한 한 잔의 chai가 생각나는 시간이다.



2018년도 과기협 수학 경시대회 제 27회 뉴잉글랜드 수학 경시대회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4월 7일 MIT에서 2018년 전미 수학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력발휘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가대상	뉴잉글랜드지역 4학년 ~ 11학년 학생
대회일시	2018년 4월 7일(토) 1:00PM – 5:00PM (12:30PM check-in, 5:00PM 시상)
대회장소	MIT Building 4 Room 370 182 Memorial Drive, Cambridge, MA 02142
참가신청	- 참가비 : \$25 (온라인 등록) \$30 (현장 등록) - 온라인 등록: www.ksea.org/nmsc/ - 온라인 등록 마감: 3월 30일 (금요일) - 기타: (1) 온라인 등록자도 현장에서 check-in 하셔야 합니다.
행사문의	Email: contact@kseane.org 정유진 (617-417-4541)



- 매년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입니다. (전국규모 2,000명 이상)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홈페이지(www.ksea.org/nmsc/)에서 미리 온라인 등록을 해주시면 행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수상자를 위한 상품과 참가자 모두를 위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마감은 3월 30일 입니다.
- 1시30분에 학년별 시험장소로 이동하니 반드시 1시 이전에 오셔서 check-in 을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최: 재미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 (MIT KGSA),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NAKS-NE)

다양한 가전제품 및 건강제품을 갖추고 있는 [하이트론스]에서 만족할 만한 가격 ·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새봄 부활절 맞이 가전 · 건강제품 대세일

김치냉장고 봄맞이 대세일 하이트론스에서 만나는
환상의 가격! 최상의 조건!

김치냉장고 전문 수리기술자 상주
NY, NJ, PA 무료 딜리버리

★ 봄맞이 · 부활절 스페셜 ★
스탠드 김치냉장고 구입시
마루 물걸레청소기 무료증정
(3월 30일까지)

부활절 맞이
SPECIAL OFFER

Samsung zipel
330L 스탠드
\$2,899

220L 구입시
\$1,350

딤채
418L 스탠드 \$2,999
+ 공기청정기

180L 구입시
\$1,150

120L

330L

DAEWOO Klasse
330L

LG 김치냉장고
LMNS14420V
14.3 cu.ft
Kimchi / Specialty Food
French Door Refrigerator
\$3199.99 →
\$2699.99

물걸레 청소기 / 딤채 쿡 / 쿠쿠 밥솥 / 한국산 이불 등... 한국산 히트상품 대세일

딤채 쿡
“밥알이 선다
밥맛이 선다”

쿠쿠 압력밥솥

물걸레 청소기
EZ SWING 2000
\$179

8900
\$275

8900
\$285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초미세먼지 흡수... 인공영양제
깨끗하게~

세계최초!
세상에 없던 의류 관리기
LG styler
\$1999.99 →
\$1399.00

대웅막탕기
2.7L 대용량
전통 음식
100% 국대신

닥터큐
이신박이 추천하는
발목관절 재활운동기

Kuvings Juicer (쥬스기)

한국산 이불 대세일
극세사 / 밉크 / 연이불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사지체어 수리 전문가 상시 대기! / 마사지체어 서비스가 가장 확실한 곳!

INADA DREAMWAVE
\$250 /월
36개월 + Tax

INADA NEST
\$7,900 →
\$6,000
24개월 + Tax

INADA FLEX 3S
\$7,500 →
\$4,300
12개월 + Tax

PANASONIC MAJ7
\$167 /월
60개월 + Tax

PANASONIC MA73
\$223 /월
36개월 + Tax

PANASONIC 30007
\$100 /월
36개월 + Tax

가전제품의 명가
건강제품의 명가

HITRONS

보스톤: 781-862-6867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신영의 세상 스케치

640회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운명이라는 것에 내 삶을 걸고 싶지 않았다. 운명에 모든 걸 건다는 것은 삶에 자신 없는 이들이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빙자한 못난 이름표 같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의 길목마다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그 누구의 선택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늘 세 아이에게도 삶에서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 엄마의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귀는 있어 듣되 사람에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생각일 뿐 지금에와 가만히 생각하면 운명은 이미 내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프리즘을 통해 와 있었음을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 아니 젊음에 대해 아직은 자신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늙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처럼 최면을 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여자에게서 하나둘 늘어나

는 흰 머리카락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인지하면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늙지 않을 거라고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은 자신이 준비하지 않은 뜻밖의 시간과 공간에 부딪혀 깨져야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생각이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사로잡혀 착각을 사는 것뿐이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어리석음인 까닭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좋아한다. 그것은 너무도 작고 초라한 자신의 삶의 일부분일 뿐인데 코끼리 허벅지를 만지고 다 보았다고 말하는 이치와 무엇이 다를까. 그저 삶은 말이 아니라 머리로 살든 몸으로 살든 가슴으로 살든 사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경험한 만큼이 자신의 삶이고 인생일 뿐이다.

내 어머니가 그랬고 내 할머니가 그랬을 그 인생은 뭐 그리 거창할 것도 그렇다고 또 초라할 것도 없다. 다만, 내게 주어진 삶에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한 번쯤은 내게 허락된 운명과 대면할 줄 아는 한 번 뿐인 삶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멋진 삶이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눈치나 처해진 환

경을 미끼로 자신을 자책하거나 주눅이 들지 않는 존재 가치로 이미 충분한 누림의 삶이면 좋겠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을 충분히 사는 삶 그래서 지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묶여 오늘을 잃지 않는 삶이면 좋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귀하다. 하지만 나 아닌 다른 것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 싫고 하지 않아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나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때만이 훗날 인생의 황혼길을 걸을 때 아쉬움이나 후회가 적지 않을까 싶다. 이 세상에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생명의 존귀함은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크든 작든 아픔과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 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으며 쉬이 얻은들 그 기쁨이나 행복이 오래갈까 말이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까닭이다.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만이 자유로운 나를 만날 것이다. 제아무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문을 외

우듯 난 잘살고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은 생각이 아닌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다. 이 너른 세상에서 자신의 작은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생각하면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절로 오른다. 저 바닷가의 백사장에 반짝이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저 높은 산에 구르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리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아주 작은 미물들에게 까지도 말이다.

하늘이 내게 주신 낙천지명(樂天知命)의 삶의 노래를 부를 때만이 무한한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유한한 피조물인 나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해안이 열리는 까닭이다. 마음의 눈이 열릴 때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하지 않은가. 이처럼 나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안 까닭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간계奸計라면 역시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曹操일 것이다. 여우같은 지략으로 최대 영웅이었다. 간웅奸雄이라 하던가. 그런 그도 제 꾀에 넘어가기도 했다. 삼국지 적벽대전에 나온다. 제갈량이 벌인 화공작전에 조조는 대패했다. 군사와 배를 잃고 쫓기게 되었다. 도망중 갈림길을 만났다. 한쪽은 길이 좁고 험했는데, 다른 길은 넓고 평탄해 보였다. 좁고 험한 길쪽에서 모닥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조조가 말했다. ‘제갈량이 땀을 뼀다. 작은 길쪽에 불을 피워 큰길로 유도하고 기습하려는 계략이다.’ ‘우리는 험하다만 폭 좁은 길로 간다.’ 장졸들이 감탄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 폭이 좁은 길로 들어서면서, 매복한 관우병

사들에게 습격 당하고 포로로 잡혔다. 조조는 제꾀에 스스로 넘어갔고, 허허실실虛虛實實전법에 걸려 들었다.

간계間計. 간계奸計와는 다르다. 간첩을 이용하는 책략이라 해야겠다. 중국 근대사 이야기이다. 중국 공산당에 웅항휘라는 고정간첩이 있었다. 그는 주엔래 명령을 받고, 국민당 군고위장성 호종남 측근으로 암약했다. 국민당정부 신뢰 또한 당연히 두터웠다. 극비문서를 열람하고 장개석과 호종남 사이를 오가는 기밀서신은 모두 읽는 건 그의 일과日課. 무려 12년간 모든 고급정보를 빼내, 중공측에 넘겼다. 그런 그는 중공정부가 세워진 이후, 유엔주재 중공대사로 활동했다. 황당하다 할까 무섭다 할것

한담객설閑談客說: 허허실실虛虛實實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인가.

작년 봄이다. 북한 핵문제가 위협할 때였다. 타임지 기사 타이틀이다. “No Good Options on North Korea”. 기사를 읽으며, 한국정부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인듯 보였다. 군사행동, 경제적 제재, 아니면 외교적인 압박. 모든게 마뜩치 않을 성 싶었다는 말이다. 당시, 두보의 시를 떠올렸다. 등약양루 한구절이다.

戎馬關山北 龍馬關山北 關山 북쪽 고향엔 전쟁이 한창이니 憑軒涕泗流 빙헌체사류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린다.

일년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젠 한국 대통령

이 북한 최고위층과 만났다 했다. 연이어 미국 대통령과도 만났다고 했던가. 반가운 소식이 들림었는데, 뭔가 미심쩍은 건 어쩔수 없었다. 한편, 그가 했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이젠 편히 발뺌고 주무시라.’ 하지만, 한국은 아직 발을 뺄지 말아야 하고, 조심에 조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허허실실 전법을 펴는 건 아닌가? 지난 주엔 북한 최고위층이 중국을 방문했다. 허虛를 찔렀나 싶다.

북한을 움직이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젊디 젊은 지도자가 아무리 현명하다해도, 분명 조언하는 참모가 있을 것이다. 그건 궁금하다.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20:23)

MAD CLOWN & SAN E

WE WANT YOU

2018 TOUR

with SOBAE & DJ JUICE

APRIL 15

SUNDAY

4:00PM	EARLY ENTRY
4:30PM	MEET & GREET
6:00PM	SHOW

THE MIDDLE EAST

472-480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35	EARLY BIRD
\$50	GENERAL ADMISSION
\$120	MEET & GREET



STARSHIP
ENTERTAINMENT

BRANDNEW
MUSIC

Ticket info: www.kamostudio.com/wewantyou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32)

재정설계사에 대한 질문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 재정설계사의 도움을 받아볼까 생각합니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이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돈을 잃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투자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금융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친절한 것은 물론 말도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재정설계사가 진정으로 나의 이익(Best Interest)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하는지 아니면 재정설계사 회사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 재정설계사를 만났을 때 반듯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1) '신용 의무(Fiduciary Duty)'가 있습니까?

'신용 의무'란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으로 된 의무입니다. 주식 브로커(Stock Broker), 보험 에이전트(Insurance Agent),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Financial Adviser)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들에겐 적당한 의무(Suitability Duty)만이 있습니다.

어뉴이티(Annuity)와 같은 투자상품에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자산으로 투자하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재정설계사에게 준 수수료(Commission)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뉴이티 상품에 높은 경비를 부과합니다. 재정설계사는 회사나 본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Total Expenses)가 각각 무엇이며 얼마 부과합니까?

재정설계사 대부분은 돈을 운용하며 받는 운용비(Management Fee)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투자 종목마다 경비가 있습니다. 재정설계사가 분산투자 한다고 여러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뮤추얼 펀드마다 경비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뮤추얼 펀드는 수수료(Load)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재정문서에 나오지 않기에 일반 투자자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평균 경비는 1.33%입니다. 또한, 재정설계사가 수수료가 있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5% 이상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인덱스 펀드나 ETF는 경비는 약 0.2% 정도입니다.

3) 재정설계사의 학력과 경력이 어떤지?

우리 한인은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생각할까 봐 이러한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번 소중한 돈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설계사는 단 몇 시간 세미나에 참석하고 받는 수수료는 무수히 많습니다. 최소 미국 대학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 나왔는지 지역 신문이나 잡지에 금융회사나 재정설계사가 나왔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은 방송 시간을 사서 나올 수 있고 지역 잡지 등에도 광고나 돈을 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 투자자는 알아야 합니다.

4) 투자 수익률을 문서로 작성해서 고객에게 발표합니까?

투자하며 매년 나의 수익률이 정확히 모르

는 투자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대로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매년 그리고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내 돈이 투자된 금융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와 있는 문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형성하면, 투자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든 투자에는 투자 위험성이 있습니다. 투자 종목마다 그리고 여러 종목이 모임 포트폴리오(Portfolio)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가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투자 위험성을 숫자로 표현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공인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신용 의무'가 있다고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의껏 일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재정설계사를 고용하기 전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확인한 후 나의 소중한 돈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21 화랑세기花郎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1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문노가 8세 풍월주가 되면서 화랑의 조직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고, 세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모든 제도가 원숙하게 갖추어졌다. 먼저 화랑의 조직은 크게 선문仙門과 낭문郎門으로 나누어졌다. 선문의 우두머리는 풍월주이고, 그 아래에 부제副將이 있었다. 초기에는 진흥왕과 지소태후가 풍월주와 부제를 임명하였고 진흥왕의 후궁인 미실도 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였다. 그리고 후세로 내려오면서 왕과 왕비 또한 전임 풍월주들도 후임의 임명에 관여하였다. 초기에도 5세 풍월주 사다함은 후임으로 세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풍월주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상선/상화가 되었다. 상선은 화랑의 낭정郎政에도 관여하였고, 조정으로 나가서 벼슬을 하기도 하였으며, 군대로 출사하여 장군이 되기도 하였다.

이전의 7세 풍월주 설화랑 당시의 좌우봉사를 좌우대화랑左右大花郎으로, 전방봉사랑은 전방대화랑前方大花郎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각 대화랑은 3부부의 낭도를 거느리게 하였다. 좌대화랑에 속한 좌삼부는 도의道義, 문사文事, 그리고 무사武事였다. 우대화랑에 속한 우삼부는 현묘玄妙, 악사樂事 그리고 예사藝事였다. 전방대화랑에 속한 전삼부는 유화遊花, 제사祭事 그리고 공사供事였다. 그리고

각기 삼부에는 대화랑(1인), 좌우화랑(2인), 소화랑(3인), 묘화랑(7인)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좌우전방대화랑의 3부 외에도 진골화랑眞骨花郎, 귀방화랑貴方花郎, 귀문화랑貴門花郎, 별방화랑別方花郎, 별문화랑別門花郎이 있었다. 이 특별한 부서에는 진골과 대족大族 및 거문巨門의 자제들이 속해 있었다(대족과 거문은 진골과 같은 신분은 아니지만 세력을 가지고 있던 집안을 말한다. 가령 문노와 같이 6등급인 아찬 이상의 관등을 갖게되면 골품을 얻어 진골이 될 수도 있었다. 문노는 골품이 없었지만 거칠부의 딸 윤궁과 결혼하여 골품을 얻었다). 선문에 속한 화랑들은 현재의 군조직으로 비교해 보면 사령관으로 부터 초급장교에 해당된다. 그리고 화랑의 정이가 '귀족의 자제로서 미남자로 구성된 낭도' 라고 후세에 전해진데는 아마도 선문에 속한 낭도들로만 보았기 때문인것 같다.

다음에는 선문 아래의 낭문郎門을 보자. 낭문은 낭두郎頭와 낭도郎徒로 구성되어 있었다. 낭두는 현재의 군조직으로 비교해 보면 부사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낭두는 7등급(후에는 9등급)으로 나누어져서 60세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도 있었고 뿐만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직을 이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낭도는 현재의

군조직에서 사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서민(심지어 천민)의 아들로 준수하면 낭문에 들어 낭도가 될 수 있었다. 낭도는 13~14세에는 동도童徒, 18~19세에는 평도平徒, 23~24세에는 대도大徒가 되었다.

'남모와 준정의 사건' 으로 원화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화랑도 내부에는 많은 여자들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있었다. 6세 풍월주 세종때는 미실이 화주花主의 지위를 넘어 원화제도를 부활하여 7세 설화랑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평소에는 풍월주의 부인을 화주라 불렀고, 낭두의 부인들은 봉화/봉로화/봉옥화로 불렸다. 게다가 서민의 딸로서 아름다운 낭자들을 낭문에 속하게 하여 남도南桃라고 곳에서 기거하게 하였으며 이들은 30세 까지 그곳에서 유회로 있었다. 이 유회들은 전방대화랑에 속해 있었다. 일어로 설성의 어머니 설씨너는 유회로 있을 당시 어느 이름모를 준수한 화랑과의 첫사랑에서 설성을 잉태하였고, 그 미남화랑은 전장으로 출전한 후 생사를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홀로 아들 설성을 키우다가 구리지의 눈에 들어 그의 후처가 되었다. 아비를 모르니 어머니의 성을 따라 설薛씨로 지었고, 그 설성이 7세 풍월주 설원랑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잘 정비된 조직으로 발전한 화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화랑의 수장들을 포함한 많은 선문의 화랑들이 조정으로 나가서 고위신료가 되었고, 군으로 나가서 용맹한 장군이 되었다. 즉 삼국사기에 몇번이나 인용된 많은 '현좌충신賢佐忠臣 양장용졸良將勇卒' 이 화랑에서 배출되었다. 그리고 후일 김유신이 풍월주일 때 진평왕에 의해 출궁된 10세의 김춘추를 부제로 삼은 후 낭도들을 거느리고 지도자의 위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칠성우七星友' 를 결성하였다. 그들은 모두 화랑들이었다. 김유신 자신을 비롯한 호림공, 보종공, 염장공은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한편 647년 신덕여왕이 비담의 난을 토벌하던 도중 죽게되었고, 그의 유언으로 사촌 진덕이 왕위에 올랐다. 이때 벌써 김춘추는 왕위계승 서열 1위였지만 진덕에게 양보하고 김유신과 함께 비담의 난을 종식시켰다. 진덕여왕이 성골의 마지막 왕이며, 651년 정월초하루에 백관들로 부터 새해하례를 받은것을 시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새해하례(새배)가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A+ Program Summer 2018

보스턴 No.1 아카데미 프로그램
한 발 앞선 교육, 25년 노하우로 A+ 가 도와드립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 7월반: 7월 2일 - 7월 23일(7월 4일 휴강)
- 8월반: 7월 30일 - 8월 17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반: 9 AM - 12 PM
- 오후반: 2 PM - 5 PM
- FULL DAY: 오후 각종 활동/ 워크샵, 9 AM - 5 PM

A+영어&수학반 (1-8학년)

A+ 영어와 수학 수업은 하버드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교사자격증을 갖춘 원어민 강사들과 A+ 의 전문적인 커리큘럼 및 교재를 통해 학생들의 독학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합니다.

Writing / Public Speaking & Debate 연습반 (중학교 5-8 학년 & 고등학교 9-12학년)

이 수업은 읽기, 쓰기과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통해 학생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매끄럽게 표현하는 요령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에 집중합니다. 학생들의 심도 깊은 분석력과 창의력을 키움으로 개성있는 아이디어, 탁월한 단어 선택,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들로 자신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등수학반 (9-11 학년)

Algebra II, Geometry, and Pre-Calculus 과목별 수업은 A+ 교재를 통해 진행되며, 선생님들께서 평가 테스트를 통해 개인에 맞춘 학습능력 향상법을 지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대학 입시 “Boot Camp” (11 학년)

A+에서 학생의 대학 입학에 도와드립니다. 상담을 통한 대학 선택에서부터, common application, 이력서, 개인 에세이 작성, 인터뷰 트레이닝, 추천서까지, 뛰어난 대학 입시 패키지를 학생 맞춤으로 준비해드립니다.

최고의 테스트 준비반이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

ISEE | SSAT

중급 (5&6 학년), 고급 (7&8 학년)

해마다 A+ 학생중90%가 모두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입학하고 보스턴 라틴스쿨(BLS) 와 그외 명문 사립학교의 시험에서 상위권 점수 결과를 받습니다.

SAT (9-11 학년)

A+의 25년 노하우가 학생들의 아이버리그 및 명문대 진학에 도움을 드립니다. SAT 점수를 평균 150에서 300점이상 향상합니다.

TOEFL

미국에 처음 온 유학생을 위해 디자인된 수업입니다. 경험이 많으신 전문선생님이 많은 연습훈련과 실전시험에 대한 팁을 바탕으로 점수를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Locations & How to Apply

50 Sewall Ave.,
Brookline, MA 02446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Contact us at **617-730-3705** or **617-338-5288**, or email to **aplusinfo@ascenglish.com**

Website: **aplusprogram.com/summer-program**

Facebook: **@aplusprogra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하는 한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2)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이번 주는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나 투자비자 등을 소지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란, 외국인(alien)중 ①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 '실제체류기간(Substantial Presence Test)'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방문교수 등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exempt individual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해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둘째: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

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당해연도 체류일수 + 지난해의 체류일수 × (1/3) + 지지난해의 체류일수 × (1/6))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직원, 대선경기에 참가한 직업운동가, 교사, 연수생, 연구원 및 학생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해 준다(exempt individual). 이 규정은 연구원 등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을 적용할 때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해 줘 결국 그기간 동안은 nonresident alien로 본다는 의미다.

이 규정에 따르면,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은 2과세연도(즉, 입국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를 비거주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등이 지난 6년의 과세연도 중 어느 2과세연도를 F, J, M, Q비자를 가지고 학생이나 연구원, 방문교수 등의 자격으로 이미 비거주자로 인정 받았다면,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체류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연구원 등으로 면제받은 기간이 지난 6년의 과세연도 중 4년 이하여야하고,

- 당해연도의 모든급여소득은 외국 고용주가 지급한 것이어야 하고,

- 연구원 등이 미국에 거주한 과거 6년의 기간 중 실제거주한 매해의 모든급여소득을 외국고용주가 지급했어야 한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연구원 등은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된 연구원 등에 대한 과세

위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nonresident alien으로 판정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세금이 계산된다.

미국내 원천소득만 신고

연구원 중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 사람에게는 '미국내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따라서 연구원 등은 소득(즉,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로열티, gam-

bling 소득... 등)이 발생하면 그것이 미국내 소득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

미국세법과 한미조세조약에서 언급한 소득원천지 구분 기준을 보면,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급여, 미국의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의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연구원 등에게 급여,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조세조약에 의한 면제

요건을 갖춘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에 조약에서 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2년동안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한미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 이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비거주자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은 급여소득 등과 같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한 방법을 적용하며, 주식 양도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소득(NEC: Not Effectively Connected)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있는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Prime Motor Group

Fast, Fair & Simple



“\$0 Down Leases!”



2018 Hyundai Sonata SE

Lease: **\$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3,180



Automatic, FWD

2018 Hyundai Elantra SE

Lease: **\$12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19,245



Automatic, FWD

2018 Hyundai Santa Fe Sport

Lease: **\$1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7,345



Automatic, AWD

2017 Hyundai Tucson Sport

Lease: **\$21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4,140



Automatic, AWD

2017 Hyundai Sonata Hybrid SE

Lease: **\$21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7,345



Automatic, FWD

2017 Hyundai Veloster Value Edition

Lease: **\$23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2,310



Automatic, FWD



36 month lease with 10,000 miles per year. \$0 down. All lease prices exclude sales tax, title, \$650 acquisition fee and \$495 documentation fee. Taxes are additional. No security deposit.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Valued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vehicle distributed by Hyundai Motor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Coupon. Competitive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 See your local dealer for program details and list of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Valued Owner Coupon. All offers expire 04/30/2018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活 (활)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For this very reason, Christ died and returned to life so that he might be the Lord of both the dead and the living. - 로마서 14: 8, 9.

북한의 핵(核)과동이 한·미, 남·북한 관계의 큰 변화를 예상케 한다.

한국의 북한문제전문가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한국이 북핵 문제의 중재자가 아니라 최대의 이해(利害) 당사자이며 핵인질의 직접적인 피해자” 라고 주장했다.

4월 5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남주홍 교수는 “평화를 위한 대화는 환영하지만 안보 문제는 고도의 위기관리 전략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서두르는 느낌이 다” 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김정은이 대화를 서두르고 마음이 앞서가고 이를 이용해야 한다”며 “철저한 한·미 공조로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회담을 통한 고도의 공작전으로 우리를 교화하려 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북의 최근 대화공세를 “고도의 심리 공작전” 이라고도 했다.

남 교수는 국가안전기획부 안보통일보좌관(대북특보)를 거쳐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 대학원원장,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 주캐나다 대사, 국가정보원 1차장을 역임했으며 김일성 사망 때는 안기부 대북특보로서 김정일 사망직후와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시에는 국정원 대북정보 총 책임자인 제1차장으로서 북한 지휘부의 움직임을 지켜봤었다.

북한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한미의 평화적 조치에 따라 비핵화(非核化)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중(北中) 합의 연장선상에서 선(先) 포괄합의 후(後) 단계

적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

이는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北核) 위협 해소가 기본 목적인 만큼 의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또 철저히 한미가 공조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한미(韓美) 공조가 안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회담에서 북한은 구체적인 것은 미국과 얘기하겠다고면서 남북간 교류협력 등 핵(核)문제 이외의 주제를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추상적 선언 수준의 비핵화 원칙에 머물면 미북(美北) 정상회담이 늦춰질 수도 있다.

북한의 요구가 분명히 설명돼야 한다. 우리는 이 회담을 통해 우리의 선의(善意)와 북한의 진의(眞意)를 교환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고도의 심리작전이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우리를 교화·순화하고 동화(同化)하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내가 북한 이익을 대변하려고 미국과 많이 싸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위력 의미에서 북한 핵 개발은 일리 있다”고 하기도 했었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여야는 매우 당황하기도 했었다.

이번에도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편인지

확실히 하라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도 그래서 등장했다.

남북 양측은 대화 등 여러 방법으로 서로를 향해 레짐 체인지(체제 변화, Regime Change)를 시도한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북한을 무서워해서도 안된다.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이 난다”는 얘기는 국내 정치적용 논리일 뿐이다.

지난 일요일인 4월 1일이 세상 죄(罪)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께서 부활(復活)하신 날이다.

쉽게 말해서 인생(人生)이 세상에 태어나 “육체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란 것.

육체가 죽었으면 영혼(靈魂)이 그리스도 예수(Jesus Christ)님을 따라 하늘에서 영생(永生) 곧 제2의 인생을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영생과 연결되는 활자를 풀면 ① 활활: 생也생야 - 살 활. ②盛動성동 - 물소리 팔. 두가지 뜻으로 발음된다.

①生: 살 생은 ‘J’ - 左引之와인지는 빠칠 별 + 主 = 生. 하나님 주님의 “숨결 = 호흡”을 그림화한 것.

따라서 주님은 임금왕(王) 왕중 왕, 곧 한 분 뿐이신 하나님을 가르켜 “왕의 숨결”: 영원히 살아숨신다는 뜻. 사람이 태어나면 - 출생(出生)하면 바로 출생신고(出生申告)를 하는 것은 하나님, 천부(天父)의 숨결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신고: 출생신고(出生申告)를 한다.

이것을 활고(活告)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숨결을 이어 받았으므로 하나님 식구(食口)가 됐다”는 것.

요즘 한국에선 이 생(生)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부정해서 남녀사이에 생긴 자녀를 ‘출생신고’ 않고 또는 유산(流產)시키면서 마치 생을 관리하는 “하나님 권한”을 젊은 남녀가 컨트롤(Control:제어)하려는 사례가 날로 늘어난다.

이것을 죄중대죄(罪中大罪): 죄 중에서 가장 큰죄: 풀면 살인 죄(殺人罪)에 해당된다. 크다는 뜻의 “大”는 “하나님(-)과 인자(人子) 예수님”을 함께 거스르는 대죄(大罪)를 뜻한다.

②盛動(성동)은 ‘글자 뜻’ 대로 계속 움직인다는 뜻. 盛: ‘성할 성’ 또는 ‘무성할 성’의 뜻을 지닌 盛은 “움직일 동(動)”자와 합해서 “쉴새 없이 계속 움직인다”는 뜻. 무엇을 하든지 쉴새 없이 계속 움직이면 물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이 쉴새 없이 소리내며 움직임을 표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동(盛動)하심을 영생수(永生水)에 비교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 요한복음 4:14.

목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게십니까? 영원토록 목 마르지 않는...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99

*전상품 무약정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KBS MBC SBS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1

On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SONGLAWFIRM



트럼프가 걸어잠근

H-1B

그 열쇠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 있습니다.

ALLA, 전미이민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팀 N YouTube G H-1B 법률상담 Q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법
사고 상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법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N songlawfirm1

f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SONGLAWFIRM.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융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1. SAT1,2/ AP 수업 특강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풀이 중심
상시 참여와 주말 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 학과목 개인 수업 지도

영어, 수학,역사,과학,외국어
경제,심리, 기타 과목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4월 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4/16(월)~4/26(토):6일

1. SAT1/ SSAT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각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실전 연습 문제 풀이
단기 Test Prep 확립

2. SATII Subject Test

Math IIc,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학과목 선행
학습 지도

2018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명확한 업무 처리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 경시 대회
(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Biology, Chemistry, Physics)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Ste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